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년 8월	<p>2018년 8월</p> <p>2018년 8월</p>
석사학위논문	<p>2018년 8월</p> <p>석사학위 논문</p>
	<p>2018년 8월</p> <p>석사학위 논문</p>
효과적인 독일어 수업에 위한 독일동화 활용 방안 연구	<p>2018년 8월</p> <p>석사학위 논문</p> <p>효과적인 독일어 수업을 위한 독일동화 활용 방안 연구</p>
박 소 정	<p>2018년 8월</p> <p>석사학위 논문</p> <p>효과적인 독일어 수업을 위한 독일동화 활용 방안 연구</p> <p>조선대학교 대학원</p> <p>서양학과</p> <p>박 소 정</p>
	<p>2018년 8월</p> <p>석사학위 논문</p> <p>효과적인 독일어 수업을 위한 독일동화 활용 방안 연구</p> <p>조선대학교 대학원</p> <p>서양학과</p> <p>박 소 정</p>

효과적인 독일어 수업을 위한 독일동화 활용 방안 연구

Eine Studie über die Anwendung des deutschen
Märchens im Deutschunterricht

2018년 8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서양학과

박소정

효과적인 독일어 수업을 위한 독일동화 활용 방안 연구

지도교수 박 대 환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서 양 학 과

박 소 정

박소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김 옥 선</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박 대 환</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신 원 경</u> (인)

2018 년 5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Zusammenfassung.....	iii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	3
II. 동화의 개념 및 특징.....	5
III. 독일어 교육의 현황과 문학텍스트의 활용.....	7
1. 우리나라에서 독일어 교육의 현황.....	7
2. 문학텍스트로서 동화를 활용한 독일어 수업의 제언 및 학습효과.....	9
IV. 독일어 수업에서의 독일동화 활용 방안.....	13
1. 문학텍스트 활용을 위한 선결과제.....	13
2. 실제 수업에서의 동화 활용 방안.....	16
2.1. 동화를 활용한 읽기 학습.....	16
2.2. 동화를 활용한 듣기 학습.....	28
2.3. 동화를 활용한 쓰기 학습.....	38
2.4. 동화를 활용한 말하기 학습.....	53
3. 동화 “백설공주”를 접목한 실제 수업 모델.....	63

V. 결론.....77

참고문헌.....79

Zusammenfassung

Eine Studie über die Anwendung des deutschen Märchens
im Deutschunterricht

Park, SoJeong

Advisor : Prof. Park Dae-Hwan, Ph. D.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mmer weniger Leute in Südkorea wollen Deutsch lernen und die Sprache hat deutlich an Bedeutung verloren. Jedoch steigt die Zahl der Englischsprechenden immer weiter unter dem Einfluss der Globalisierung an. Und wenn die Leute noch Interesse an weiteren Fremdsprachen haben, lernen sie dann Chinesisch oder Japanisch. Der Hauptgrund liegt darin, dass man mit Deutschkenntnissen bei der Berufswahl weniger Vorteil hat als mit Englisch-, Chinesisch- oder Japanischkenntnissen. Auf der anderen Seite haben die Lernende das Gefühl und das Vorurteil, dass Deutsch schwierig zu lernen ist. Dadurch verlieren sie zunehmend das Interesse und es wird in Südkorea in der Zukunft immer weniger Leute geben, die gern Deutsch lernen würden. Aus diesem Grund hat der Verfasser in dieser Arbeit versucht vorzuschlagen, wie man die Motivation der Deutschlernende wecken kann und wie deutsche Märchen als eine pädagogische Methode im Deutschunterricht angewendet werden können.

Die deutschen Märchen, die die Brüder Grimm für die Bevölkerung gesammelt und in der lebendigen Sprache zusammengestellt haben, enthalten deutsche Kultur, deutsche Sitten und deutsches Bewusstsein. Deshalb ist das Märchen ein gutes Bildungsmaterial, da die Lernende durch das Märchen die Ideale und Lebensgewohnheiten des deutschen Volkes kennen lernen können. Außerdem kann man mit den leicht geschriebenen Märchentexten auch Wörter, einfache Sätze und die entsprechenden Grammatikregeln lernen. Ein Vorteil ist, dass die Märchen der Brüder Grimm den Lernenden oft schon bekannt sind, weshalb sie die Bedeutungen der unbekannt Wörter und Sätze leichter erschließen können.

Daher konzentriert sich diese Studie darauf, Lernende dazu zu bringen, deutsche Wörter und Satzausdrücke auf der Grundlage des Vorwissens, das die Lernenden bereits besitzen, besser zu erlernen. Spielerischen Aktivitäten und aktive Unterhaltung im Unterricht sind daher positiv und hilfreich, die Teilnahme der Lernenden aktiver zu gestalten.

Es ist zu hoffen, dass diese Studie ein Mittel wird, das den Lernenden die Motivation und das Interesse zum Lernen der deutschen Sprache und Kultur vermitteln kann.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전 세계는 오늘날 하나의 지구촌 시대에 접어든지 오래다. 이에 따라 외국어 능력은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문화 간의 소통이 장벽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세계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이 되었다. 외국어 구사능력은 개인뿐 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따르기 위해 우리는 여러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외국어 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주기적으로 개편되고 있다.

1883년에 대한제국과 독일제국 사이에 우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 한국과 독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해왔고 독일어가 한국의 커리큘럼에 정착한지도 100년이 넘었다.¹⁾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되는 등 다방면에서의 정보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영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경쟁력이 높은 언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외국어 능력은 곧 영어 구사능력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었다. 이러한 추세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일본어와 중국어가 제 2외국어로서 도입된 후부터 프랑스어와 함께 유럽 문화의 중요한 소통 매체였던 독일어의 위상은 크게 추락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4년도부터 대학 수학 능력시험에서 제2외국어가 제외된 이후 독일어 교육은 보다 소홀히 되고

1) 홍명순, 정시호, 이광숙, 이성만, 하수권, Ulrich Ammon(2002): 「한국에서 독일어 - 과거와 현재」,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10집 173쪽.

있다.

그러나 약 3억 5천만명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어에 비해 제 2 외국어에 속하는 7개 언어인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는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모국어 또는 제2외국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실용적 가치와 교양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국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된다.²⁾ 또한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근대 이후 학문·기술·예술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룩하였고, 오늘날 EU는 물론 전 세계에 걸쳐 정치·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학습 대상³⁾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어 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독일어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독일어를 배우고자 하는 고등학생 또는 더 나아가 대학생의 숫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심지어 독일어교육의 존폐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여러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수업에 도입시켜 적용하며 노력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어 학습은 대부분 단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은 시중의 어학 교재 및 수업을 통해 중요한 표현을 반복하고 익히며 문법적 원리를 단순 암기하는 방향으로 학습하고 있다.

외국어 학습이란 필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만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언어권의 문화를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포함되므로 사고의 폭을 더욱 확장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낯선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일차적으로 해당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친근감과 흥미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런 기존의 학습 방법은 독일어는 재미없고 어렵다는 편견을 없애주지 못

2) 이기식(2007): 「독일어 교수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20집, 40쪽.

3) 교육부(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 997쪽.

할 것이다. 이에 어떻게 하면 그 편견을 조금이나마 무너뜨리고 독일어가 학습자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독일어 교수자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면서 색다른 방식으로 수업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 중 특히 문학텍스트가 언어 교육에 활용되기엔 실용적이지 않고 난해하다는 인식에 독일어 교육에서 문학텍스트를 구체적으로 활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보게 되었다. 문학교육과 어학교육은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서로의 영역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두 영역은 분리되어 문학교육은 문학텍스트의 해석을 그리고 어학교육은 실용적인 언어교육적인 측면을 위주로 향하고 있다. 문학과 언어는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기존의 독일어 교육이 실상황 및 현장텍스트에 치중하는 텍스트 선택을 보완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많은 학습·교수자들에게 친숙한 문학텍스트로서의 동화를 언어적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에 활용하는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그에 따른 수업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춰 외국어 교육의 높은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외국어 교수법이 개발되어 수업에 도입·적용되고 있다. 문학작품을 활용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이지만 일반적으로 문학텍스트라 하면 지루하고 실용적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서 외국어 교육에 많이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학텍스트는 학습자에게 하나의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을 위한 유용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또한 문학텍스트를 수업에 활용할 경우, 적절한 텍스트의 선정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무

엇보다도 중요한 전제⁴⁾가 되므로 문학 장르 중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동화야 말로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독일동화라고 하면 어떤 동화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백설공주나 신데렐라와 같은 동화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동화들은 독일의 그림형제에 의해 수집 및 기록된 것으로 학습자들은 이미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의 독일 동화를 자연스럽게 접하여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다. 또한 동화는 소설과 같은 다른 문학 작품들에 비해 작품 당 분량이 많지 않고 줄거리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전 연령층의 학습자들로 하여금 독일어 학습에 부담이 없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장르이다.

따라서 동화의 이러한 장점들을 토대로 해당 언어를 단순히 반복하고 외워야 하는 대상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 동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일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기존의 문학텍스트를 통해 이루어져 왔던 해석(읽기) 및 작문(쓰기) 위주의 학습뿐만 아니라 듣기, 말하기 학습의 적용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제 독일어 수업에 활용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동화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동화를 수업에 활용할 시 얻을 수 있는 학습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독일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효과적인 독일어 학습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교사 중심의 학습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의사소통 활동을 위주로 한 새로운 학습 방안을 토대로 실제 수업 현장에서 활용해볼 수 있는 수업 모델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4) 김경숙(2010): 「동화를 활용한 독일어 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쪽.

II. 동화의 개념 및 특징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옛이야기를 들어왔다. 우리나라에서 옛이야기라고도 불리는 전래 동화는 전승 문학의 한 유형으로 처음부터 문장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 근대에 와서 수집되고 문헌으로 기록된 것을 말한다. 전승 이야기는 어떤 특정 한 세대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사람의 소유물이었다. 특히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이야기되기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민들에 의하여 소유되고 사용되며, 소중히 여겨져 왔다.⁵⁾ 전승 이야기는 이야기를 만들어 낸 당시의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를 담고 있으며, 본래 대부분이 성인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읽힐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하여 그것을 동화라고 부르게 되었다.⁶⁾

전승 이야기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시작된 국가인 독일의 그림형제(야콥 루드비히 칼 Jacob Ludwig Carl 1785-1863, 빌헬름 칼 Wilhelm Carl 1786-1859) 또한 구전되어 오던 옛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우리에게 ‘그림 동화’로 알려져 있는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 Kinder- und Hausmärchen》를 편찬하였다. 독일에서는 그림형제가 수집한 이야기들을 포함한 동화를 ‘메르헨Märchen’이라고 불렀으며 ‘메르헨Märchen’이라는 독일어는 사전적으로 ‘희귀한 이야기 seltsame Geschichte’나 ‘믿지 못할 혹은 정말 같지 않은 알림 unglaubwürdiger oder unwahrer Bericht’을 뜻하는 여성명사 ‘Mär’에 축소형어미 ‘-chen’을 붙인 것이다.⁷⁾ 많은 사람들이 그림형제가 ‘그림 동화’를 직접 썼다고 생각하지만 ‘그림 동화’는 그림형제의 창작 동화가 아니라 민담

5) 강문희·이혜상(1997): 『아동문학교육』, 학지사, 121쪽.

6) 강문희·이혜상(1997): 위의 책, 123쪽.

7) 이태영(2016): 「독일 동화교육의 역사-문학과 교육학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제 72집, 239쪽.

을 모아 엮은 전래 동화집이다. 1810년 윌렌베르크 판과 1812년과 1815년에 초판 1,2권을 낸 이후 1857년 최종판인 7판이 나올 때까지, 무려 50년의 세월 동안 시대 분위기에 맞게 빌헬름의 문학적 창작력이 더해져 탄생한 작품으로 작가의 손을 전혀 가하지 않은 민담도 아니고 작가가 순수하게 집필한 창작 동화도 아닌 그 중간에 위치하는 독특한 그림Grimm 스타일로 씌어진 동화다. 그림형제의 작업은 민족적이고 학술적인 민담수집 차원이 아니라 문학적 깊이를 더한 심층적인 변형 작업이었다.⁸⁾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각기 저마다 민족의 특성이나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한 전래 동화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는 민중 의식 즉, 주로 평민층의 의식을 보여 주는데 주로 특권층에 대한 항변을 풍자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예: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그리고 효도나 우애, 은혜 등을 강조하는 교육성이 강하며 (예: 나무꾼과 선녀, 의좋은 형제), 의식주와 같은 인간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서민의 애환 (예: 심청전, 흥부 놀부)이 담겨있는 특성을 지닌다.⁹⁾ 이에 반해 독일의 동화 ‘메르헨Märchen’에는 게르만 민족의 기질인 혹심한 생활에도 잘 견디는 특성, 가정의 사소한 사물과 사건에도 애정을 보이는 특성, 철두철미한 생활태도 그리고 연구에 힘쓰는 정신이 나타나 있다.¹⁰⁾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화들은 그림형제의 그림 동화집에 수록된 브레멘의 음악대,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개구리 왕자 등이 있다. 이 두 국가 모두 각기 다른 민족성이나 생활상이 동화에 드러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 이야기되고 들려지며 전해 내려와서 옛 선조들의 사상이나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즐거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동화가 만들어진 당시 그 지역의 생활과 종교, 미신 등을 반영한다는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8) 야코프 그림, 빌헬름 그림(2005): 『그림동화집』, 노블마인, 204쪽(이민수 작품해설).

9) 강문희·이혜상(1997): 『아동문학교육』, 학지사, 130쪽.

10) 강문희·이혜상(1997): 위의 책, 133쪽.

Ⅲ. 독일어 교육의 현황과 문학텍스트의 활용

1. 우리나라에서 독일어 교육의 현황

한국에서 독일어가 교육되기 시작한 1885년 이후로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어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철학, 사회학, 법학, 음악 분야가 대표적이었지만 강대국인 미국의 영향으로 영어의 입지가 높아졌다. 이에 모든 영역에서 미국이 세계화의 기준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교과 과정에 선택 과목으로 도입되어 영어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일본 및 중국과의 외교·경제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이 두 국가의 언어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에 반해 일본어와 중국어를 제외한 다른 제2외국어의 위상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인간만이 가진 창조적인 사고활동이며, 외국어 학습을 통하여서는 모국어를 통한 기존의 사고방식을 다른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해당 문화까지 접하게¹¹⁾ 되기 때문에 외국어 없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해당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언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이는 곧 다시 말해 독일어 없이는 독일어권 국가의 생활 풍습, 사상, 문화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주기적으로 개편되고 있다. 교육과정이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으로써 이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조정되고 그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며 현장에서 교육되어진다. 그러

11) 손성호(2004): 「독일어 교육과 창의성-중등교육과 대학 교양독일어를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제26집, 316쪽.

나 외국어과의 경우 이러한 주기적인 개편작업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지향하는 교육 방향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변 여러 여건의 변화로 인한 독일어 학습 수요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가에서도 갈수록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과거에 높은 위상을 차지하던 독일어의 위상은 점점 낮아져서 급기야 독일어 시장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어 교육 현장을 진단해보면 독일어 교수자 스스로도 독일어 교육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비교적 번거로운 회화 수업 대신 문법이나 독해 위주로 지도하고 있다. 의사소통 중심 수업이 문법 교육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회화 수업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학습하기 매우 어려운 언어라는 선입관을 가지게 되는 독일어의 특성상 독일어 기초 과정 학습자들에게는 일차적으로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문법 수업보다 회화 수업이 강조되는 것이다.

또한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의 텍스트를 보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대화체 형식의 텍스트가 임의적으로 정해진 상황 속에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간단한 어휘나 문법 등을 쉽게 가르칠 수 있다. 이는 대학의 교양 독일어 수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 학습 단원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교수자는 배운 내용을 연습하고 반복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새로 배운 단어와 문법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의 교육 과정이 주로 공급자 즉, 교수자의 입장에서 계획되었다면 이제는 수요자 즉,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어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조건 및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자료가 새롭게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재가 비슷한 형식으로 일상생활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예시와 배운 내용을 접목해 볼 연습 문제들 위주로 구성되었었고

그런 전통적인 교육 자료 및 방법에 여러 문제점이 제시되어 오고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색다른 교육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그 해결책으로 문학텍스트로서의 동화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과 그에 따르는 학습 효과에 대해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2. 문학텍스트로서 동화를 활용한 독일어 수업의 제언 및 학습효과

지금까지의 독일어 수업은 감소되어가고 있는 독일어 학습 수요에 빠르게 대처하여 적합한 교육 자료 및 방법을 개발하는 대신 일반적이고 거의 비슷한 맥락 속에서 학습자 위주가 아닌 교수자 위주의 수업으로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개선시키려는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그 중 문학 작품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학이란 무엇인지 먼저 문학의 정의를 살펴보면, 문학을 문자로 쓴 모든 것이라고 보는 입장, 작가의 상상력으로 빚어낸 작품을 문학으로 보는 입장 그리고 소설, 시, 희곡 등의 장르에 속해 있는 것을 문학이라고 보는 입장 등의 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한가지로 정의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문학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언어적 표현이다.¹²⁾ 다시 말해 인간의 삶을 언어로서 세밀하게 구성하고 표현한 것을 뜻하는데 따라서 문학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작가의 언어적 표현으로 다듬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독일문학을 배운다는 것은 즉, 독일어로 이루어진 독일인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림형제에 의해 수집되고 편찬된 독일의 그림 동화 또한 문학의 일부로서 그것을 통해 독일과 독일인의 삶을 배우고 동화 텍스트를 통해 언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12) 강문희·이혜상(1997): 『아동 문학 교육』, 학지사, 12쪽.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학 수업에서 주로 다루던 유명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나 작품 해설 그리고 작가의 생애와 이룩한 업적 등의 내용을 다루는 수업 외에 언어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 문학작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작품 선정이 일단 고려되어야 한다. 작품이 길고 어려우며 내용이 복잡하다면 학습자들의 수준을 불문하고 흥미를 떨어뜨리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그림 동화는 동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스토리가 길지 않고 비교적 쉽게 씌어져 있기 때문에 수업에 활용 시 학습자들에게 부담감을 덜어준다. 그림형제는 본래 아이들이 듣고 읽기에 적합하도록 동화를 개작하였다. 동화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게 구성되어있다면 그림 동화는 아이들의 외면 속에서 오늘날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동화는 인종, 시대, 세대를 아울러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공감하고 통용될 수 있는 문학 장르이다. 그래서 1800년대에 처음 출판된 그림 동화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현재까지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사랑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화의 스토리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고 맥락 파악이 쉽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서 누가 읽든 사건의 흐름을 쉽게 따라가고 다양한 시각에서 그 다음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문학작품으로 해당국의 문화를 접하고 언어를 배울 수 있다면 이런 동화라는 장르가 실제 독일어 학습의 매체로 활용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학습 동기를 부여해준다. 누구나 접해본 적이 없는 낯선 것을 마주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거부감이 든다. 독일어는 영어만큼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지 않았다. 독일은 중국과 일본처럼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깝지도 않다. 우리나라와 8,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나라의 언어는

낮설 수밖에 없다. 낮선 언어는 학습자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그림형제의 동화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기 때문에 친숙해서 거부감을 없애준다. 이미 우리말로 알고 있는 동화를 독일어로 마주했을 때, 학습자들은 모든 문장의 의미를 완벽하게 알 순 없어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장 속 새로운 단어의 의미도 파악할 수 있다.

어린 시절 동화책이나 TV 애니메이션으로 한 번쯤은 봤었던 「백설 공주 Schneewittchen」, 「빨간 모자와 늑대 Rotkäppchen」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 Hänsel und Gretel」 등은 모두 그림형제의 동화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다. 어렸을 때 무심코 읽었던 동화들의 대부분이 독일의 작품들이란 걸 학습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친숙한 동화텍스트를 제공해 준다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떠한 텍스트보다 거부감을 덜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지식은 낮선 언어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어휘의 의미 추론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외국어를 학습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흥미유발과 동기 부여이다. 이러한 요구는 학습자에게 친근한 동화라는 장르가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화 텍스트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언어 학습이 가능하다. 많은 교과서와 참고서에서는 임의적으로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대화문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동화는 스토리와 함께 동화의 배경이 설정되고 각 등장인물들의 역할에 따른 대화가 제시된다. 그 속에서 여러 표현들이 쉽고 간결한 단어와 문장들로 반복되면서 교과서나 참고서에서는 보기 드문 의성어나 의태어 등의 표현까지도 익힐 수 있다. 이를 통해 기계적인 암기학습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지를 동화 스토리와 함께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문화를 접해볼 수 있다. 동화 속의 상황이나 인물들 간의 갈등구조 등을 통해 독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 특히 비슷한 내용을 지니는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와 비교해보며 두 국가 간의 문화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해 독일의 음식 문화나 생활양식 등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두 나라의 동화는 대부분 선과 악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행복한 결말로 이야기가 끝난다.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이 특정 연도나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래동화는 ‘옛날 옛날에’로 시작되고 독일 동화는 ‘Es war einmal...’로 시작되는 구조도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콩쥐팥쥐’와 독일의 ‘재투성이 Aschenputtel’와 같이 내용이 비슷한 동화를 비교하며 두 나라의 의식주 문화나 생활 풍습도 알아볼 수 있다.

넷째,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동화는 전체적인 상황이나 등장인물들의 특징 파악이 쉽다. 먼저 동화의 스토리 파악이 끝났다면 동화 속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가는 해결 방법 대신 학습자의 시각으로 여러 다른 대안들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학습자 본인이라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스스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안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창의성을 신장시켜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의 수준이 아직 초·중급이라면 기본적인 예문의 틀을 정해주고 학습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간단하게 작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예문을 쓰기 위해 학습자들은 그동안 습득한 독일어 표현이나 어휘를 문법적인 구조 속에서 조직해보며 배운 내용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이 때 학습자들은 아무 제한 없이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재구성해본다. 비록 완벽하게 독일어 문장을 구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러한 오류는 외국어 학습에서 항상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장구조나 문법적인 내용을 동화의 스토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학습자 스스로 이야기를 독일어로 새롭게 구성해 봄에 따라

창의성 신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흥미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외국어 학습은 더 이상 언어적이고 문법적인 요소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우리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대상 국가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동반되었을 때 비로소 참된 외국어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림형제의 그림 동화는 독일의 문화를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 뿐만 아니라 다소 어렵게만 느껴지는 언어에 대한 호기심을 충분히 불러 일으켜서 독일어로 의사소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길러줄 수 있다.

IV. 독일어 교육에서의 독일동화 활용 방안

1. 문학텍스트 활용을 위한 선결과제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동화는 독일어 수업에서 활용할 시 얻을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동화의 특성상 내용이 간결하고 학습자들이 대부분 동화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서 조금 더 친숙하고 효과적으로 수업에서 다뤄질 수 있는 장르이지만 실제로 수업에서 활용할 시 먼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동화가 대부분 길이가 짧고 문형 자체가 복잡하지 않지만 독일어를 읽을 줄 알고 기본적인 문장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학습의 단계를 마친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일 것이다. 지나치게 쉽거나 또는 다소 복잡한 이야기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독일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그에 맞는 텍스트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동화를 활용한 수업의 구성이 주로 문법 파악, 단어 암기나 문장 구조 분석 등의 학습에 국한되지 않도록 텍스트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파트너 또는 그룹 활동이나 오락적 요소가 가미된 놀이를 도입하는 등의 과제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적합한 텍스트 선정이 필요하다. 내용이 친숙하면서 난이도가 고려된 동화 선정은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에 가장 도움이 된다. 수업에서 다루게 될 동화의 문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어휘 및 문법의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면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동화의 줄거리가 복잡하지 않고 흥미로우며 의미를 유추하기 쉬운 구문이 반복되어 있다면 학생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이다. 또한 등장인물 간의 갈등구조가 복잡하여 일차적으로 내용 파악이 어렵지 않는지 여부 또한 중요하다.

셋째, 학습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문학텍스트를 활용하는 수업이 단순히 문학텍스트를 가르치는 것에 그 목표가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목표가 문학텍스트 자체의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텍스트를 통해서 언어를 사용할 줄 알고 터득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독일어 수준에 맞게 어떤 표현법을 익힐 수 있게 할 것인지 학습 단계에 맞는 세심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한다.

넷째, 교수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동화를 활용해서 독일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교수자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교수자 중심으로 학습자들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교수자 중심의 목표 설정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었다면 그런 전통적 수업 방식을 벗어나 학습자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적합한 동화 텍스트 선정이 이

루어졌더라도 가르치는 방식이 기존의 주입식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루하다면 동화 활용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과거의 주입식이며 단조로운 수업 방식을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습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습자들을 지속적으로 자극시켜주어야 한다. 그동안 문학텍스트를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번역 식 수업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텍스트 자체가 아무리 흥미로울지라도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습자가 주도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수업에서 학습자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며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동화 속 문장 구조와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유롭고 적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습자들이 개인의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분위기가 아니라 학습자들 간의 분위기로 형성되고 교수자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을 때 바로 지적하고 수정하여 학습자들을 위축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어 학습에서 오류는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분방하게 표출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학습자들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두려움 없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어야 한다.

교수자의 작품에 대한 선지식도 매우 중요하다. 교수자는 수업에 앞서 선정된 동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배경 및 지식을 갖춰야 한다. 작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작품 속 등장인물이나 줄거리의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학습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업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다양한 학습 보조

매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교육 현장의 여건에 맞게 컴퓨터와 오디오 활용, 삽화나 DVD영상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오락이 가미된 놀이 활동을 위한 주사위, 색연필 등의 부가자료를 사용해서 수업을 보다 다채롭게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문학텍스트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마지막 선결과제는 학습자들의 자세이다.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으면서 문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언어적 요소까지 다채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텍스트를 선정해 왔더라도 학습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없다면 원하는 만큼의 수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습자들 또한 독일어 학습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수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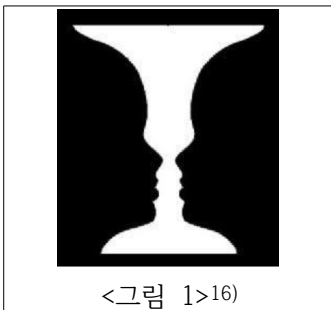
2. 실제 수업에서의 동화 활용 방안

본 장에서는 실제 독일어 수업에서 동화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동화를 직접 활용하여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인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학습 증진을 위한 수업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 계획을 위해 그림형제의 동화 중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동화 「백설공주 Schneewittchen」를 활용하겠다.

2.1. 동화를 활용한 읽기 학습

외국어 학습에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보인다. 처음에 철자들을 식별하고, 그 철자들은 단어로 결합이 되며 그 단어들의 의미가 해석된

다. 그리고 나서 어떤 단어들이 하나의 문장을 함께 구성하게 되는지가 확정되고 그 문장의 뜻은 개별 단어들의 의미를 통해서 밝혀진다¹³⁾. 이러한 개요는 매우 논리적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은 철자 식별하는 것을 배우고 각각의 단어들을 통해 읽는 것을 연습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완전한 문장을 읽게 된다는 것인데 하지만 읽기란 단어를 식별하는 것 그 이상이다. 한스 유르겐 헤링어 Hans Jürgen Heringer는 글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독자가 문자로 된 형태로부터 - 철자, 단어, 문장 - 그것의 의미를 알려하고 개개의 의미로부터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전체의 의미를 알아내려 하는 것¹⁴⁾이라고 하였다. 즉, 읽기란 작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 다시 말해 의미를 해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의미를 눈을 통해서 들어 온 글자와 연결시키는 뇌의 능동적인 활동이다¹⁵⁾. 글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뇌에 의미가 먼저 떠오른 뒤에 글자 보기가 완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래의 <그림1>에서와 같이 한 가지 그림을 보고 보는 각도나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그림을 발견할 수 있다.



- 13) Gerard Westhoff(1997): 『Fertigkeit Lesen』, Langenscheidt, S.47
 ‘Zunächst werden Buchstaben identifiziert, diese Buchstaben werden zu Wörtern kombiniert und deren Bedeutung wird erschlossen. Anschließend wird festgestellt, welche Wörter zusammen einen Satz bilden, und aus den einzelnen Wortbedeutungen ergibt sich dann mehr oder weniger von selbst die Bedeutung des Satzes’.
- 14) 우자문(2002): 「독일어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4쪽.
- 15) 우자문(2002): 위의 책, 6쪽.
- 16) http://m.blog.daum.net/robin0924/135?np_nil_b=2 에서 캡처하였다.

<그림 1>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가운데 하얀색 부분인 잔만 보거나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검은색 형상의 두 얼굴만 볼 수 있다. 처음에 가운데에 하얀 잔을 바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형태를 알려주고 난 후부터 그 사람은 이 그림을 볼 때, 하얀 잔과 서로 마주보는 두 얼굴 모두를 다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예로, 독일어 사전에 등재된 독일어 단어 중 가장 긴 ‘자동차 책임배상 보험(Kraftfahrzeughaftpflichtversicherung)’이라는 단어는 만약 학습자가 독일어 단어를 모른다면 이 단어를 보았을 때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 막막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어를 조금 배웠다면 위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는 모를지라도 어느 부분에서 단어를 끊어 읽을 수 있는지, 몇 개의 단어들에 걸쳐진 것인지, 성은 무엇인지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볼 수 있다(Das können Sie erst „sehen“, wenn Sie es wissen.)¹⁷⁾는 것인데 이는 곧, 학습자가 텍스트 속에서 단어를 몇 개만 알아도 그것들과 자신의 사전지식을 결합시키게 되면 해당 텍스트의 의미파악이 수월해진다고 볼 수 있다.

게라트 베스토프 Gerard Westhoff는 외국어 읽기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수업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텍스트 이해를 위한 도움 수단 없이도 스스로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읽기 수업의 핵심 과제¹⁸⁾라고 하였다. 작가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파악하는 읽기 활동을 위해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읽기 전략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교수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는 만큼 볼 수 있도록 먼저 학습자들의 사전지식Vorkenntnis을 활성화

17) Gerard Westhoff(1997): a.a.O., S.51

18) Gerard Westhoff(1997): a.a.O., S.45

‘selber etwas ohne Verstehenshilfen herauszufinden ist genau das, was die Lernenden später in Realsituationen können müssen. Den Lernenden dafür die entsprechenden Strategien zu vermitteln ist eine zentrale Aufgabe des Leseunterrichts’.

화시켜주어야 한다. 특히 필자가 독일어 학습에 활용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기는 그림형제의 그림 동화는 학습자들의 사전지식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동화 텍스트의 단어나 문장의 의미 파악이 다른 문학 텍스트에 비해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단순하게 텍스트를 읽고 번역하는 방식이 아닌 읽기 전 vor dem Lesen, 읽는 동안 während des Lesens, 읽기 후 nach dem Lesen의 세 단계의 읽기 과정을 위해 제공되는 적절한 과제를 통해 스스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해 볼 수 있다.

(1) 읽기 전 vor dem Lesen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어떤 동화 텍스트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인지 바로 제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을 일깨워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림을 활용해서 제목을 유추해보게 할 수 있다.

<그림 2>는 수업에서 다루게 될 동화속의 몇 가지 그림만 제시하고 직접 제목을 맞춰보게 할 수 있는 과제이다. 특히 A) Rapunzel은 우리말로도 라퐁젤이라고 불리지만 B) Aschenputtel은 신데렐라, C) Die kleine Meerjungfrau는 인어공주, D) Schneewittchen은 백설공주로 B),C),D)를 통해 우리말로 번역된 제목과 독일어로 된 원제목의 상이함 또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19) 각각의 그림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캡처하였다.

- A) https://www.youtube.com/watch?v=4eYd_ZpHHWo
- B) https://www.youtube.com/watch?v=bb259_shgSw
- C) https://www.youtube.com/watch?v=STfEo2_9z0s
- D) <https://www.youtube.com/watch?v=m90nSpAM5Dg>

▶ Sehen Sie die Bilder und vermuten Sie. Wie heißt das Märchen?



A) Rapunzel



B) Aschenputtel



C) Die kleine Meerjungfrau



D) Schneewittchen



<그림 2>19)

또한 제목을 유추해낸 뒤, <그림 3>과 같이 동화 속 등장인물 그림과 독일어 단어를 크기에 맞게 각각 잘라서 파트너 또는 그룹 별로 나눠주고 맞춰보게 하는 활동을 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어휘를 습득한 뒤 텍스트 속에서 등장인물간의 구조를 파악하고 텍스트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본격적인 텍스트를 읽기에 앞서 이러한 과제들을 통해 수업에서 다루게 될 동화에 대한 사전지식이 활성화되고 내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텍스트에 대한 두려움 대신 자신감과 흥미를 갖게 하여 읽기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20) 그림은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84s> 에서 캡처하였다.

▶ Bitte ordnen Sie zu.



der König	die sieben Zwerge	der Jäger
der Königin	der Prinz	die alte Frau
der Spiegel	Schneewittchen	der Apfel

<그림 3>20

(2) 읽는 동안 während des Lesens 단계에서는 앞서 읽기 전 단계에서 사전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첫 번째로 제시하는 과제는 읽기 전 단계에서 새롭게 알게 된 등장인물 단어들을 활용해서 내용을 유추하기 위해 먼저 텍스트 속의 등장인물의 대사만 따로 발췌하여 어떤 인물의 대사인지 맞춰보게 하는 과제이다. 학습자들은 <그림 4>를 통해 등장인물에 어울리는 대사를 찾아 연결하고 선지식을 활용하여 어떤 말을 했을 것인지 예측해서 독일어로 된 대사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다.

▶ Wer sagt was? Ordnen Sie zu.



① die gute Königin



② der Spiegel



③ die böse Königin



④ der Jäger



⑤ die sieben Zwerge



⑥ die alte Frau



⑦ der Prinz

Ⓐ „So lauf weg, du armes Kind!“

Ⓑ „Hätt ich ein Kind so weiß wie Schnee, so rot wie Blut, und so schwarz wie das Holz an dem Rahmen.“

Ⓒ „Wie bist du in unser Haus gekommen? Willst du unsern Haushalt machen, kochen, betten, waschen, nähen und stricken, und willst du alles ordentlich und reinlich halten, so kannst du bei uns bleiben, und es soll dir an nichts fehlen.“

Ⓓ „Frau Königin, ihr seid die schönste hier, aber Schneewittchen über den Bergen bei den sieben Zwergen ist noch tausendmal schöner als ihr.“

Ⓔ „Spieglein, Spieglein an der Wand, wer ist die schönste im ganzen Land?“

Ⓕ „Du bist bei mir. Ich habe dich lieber als alles auf der Welt; Komm mit mir in meines Vaters Schloss, du sollst meine Frau werden.“

Ⓖ „Meine Äpfel will ich schon loswerden. Da, einen will ich dir schenken.“

<그림4>21)










21) 그림은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84s> 에서 캡처하였다.

두 번째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림이나 텍스트 단락의 순서를 내용의 흐름에 맞게 배열해보게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교수자는 그림이나 텍스트 문단을 섞어서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학습자들은 앞 뒤 문맥을 살펴서 내용의 흐름에 맞는 순서대로 그림이나 문단을 재배치할 수 있다. 필자는 <그림 5a>에서는 동화 속 상황별 그림을 캡처해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해당 그림을 사건의 순서대로 직접 맞춰볼 수 있도록 알파벳의 순서와 상관없이 그림을 무작위로 배열하였다. <그림 5b>에서는 동화 텍스트의 내용을 간추려서 무작위로 배열하여 <그림 5a>의 그림에 맞춰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림 5b>의 텍스트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더 짧고 간결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자는 <그림 5a>의 그림을 캡처한 동영상 속의 텍스트를 <그림 5b>에 요약하여 사용하였다. 상황별 그림이나 텍스트는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읽기 전 vor dem Lesen 단계에서 단어에 대한 학습만 간단하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본 단계에서 바로 텍스트를 함께 제공하기보다 <그림 5a>의 그림만 먼저 나눠주고 사건 전개 순서에 따라 배열하게 한 뒤, 각각의 그림 속 상황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며 뒤이어 제시될 텍스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텍스트 속의 단어는 주로 동사의 과거형이 많이 쓰였고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그래서 4-5명 정도로 이루어진 그룹 별로 과제를 함께 의논하여 풀어갈 수 있게 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그룹 구성원의 수는 더 줄어들거나 많아질 수 있으며 과제 해결 속도가 빠른 학습자들이 있을 경우 파트너과제로 제공할 수 있다.

▶ Ordnen Sie die Textabschnitte zu den Bildern in der richtigen Reihenfolge.

<p>A)</p> 	<p>B)</p> 
<p>C)</p> 	<p>D)</p> 
<p>E)</p> 	<p>F)</p> 
<p>G)</p> 	<p>H)</p> 
<p>I)</p> 	<p>J)</p> 

<그림 5a>22)

<p>① Da sah Schneewittchen ein kleines Häuschen und ging hinein, sich auszuruhen. (...) Und weil das arme Kind so müde war, legte es sich in ein Bettchen und schlief ein.</p>	<p>② und sprach, „Ich habe dich lieber als alles auf der Welt; Komm mit mir in meines Vaters Schloss, du sollst meine Frau werden.“ Da war ihm Schneewittchen gut und ging mit ihm.</p>
<p>③ Sie hatte einen wunderbaren Spiegel. (...) „Spieglein, Spieglein an der Wand, wer ist die schönste im ganzen Land?“ So antwortete der Spiegel, „Frau Königin, ihr seid die schönste im Land.“ (...)</p>	<p>④ Über ein Jahr nahm sich der König eine andere Frau. Es war eine schöne Frau, aber sie war stolz und übermütig und konnte nicht leiden, dass sie an Schönheit von jemand sollte übertroffen werden.</p>
<p>⑤ Da wollten sie sie begraben, aber sie sah noch so frisch aus wie ein lebender Mensch. Sie sprachen, „Sie können wir nicht in die schwarze Erde versenken“, und ließen einen durchsichtigen Sarg von Glas machen, (...) Dass setzten sie den Sarg hinaus auf den Berg, und einer von ihnen blieb immer dabei und bewachte ihn.</p>	<p>⑥ In dieser Gestalt ging sie zu den sieben Zwergen, klopfte an die Türe, Schneewittchen sprach, „Ich darf keinen Menschen einlassen!“ Die Krämerin antwortete, „meine Äpfel will ich schon loswerden. Da, einen will ich dir schenken.“ (...) ,streckte die Hand hinaus und nahm die giftige Frucht.</p>
<p>⑦ Es war einmal mitten im Winter, und da saß eine Königin an einem Fenster. (...) ,dachte sie bei sich, „Hätt ich ein Kind so weiß wie Schnee.“ Bald darauf bekam sie ein Töchterlein, das war so weiß wie Schnee. Und wie das Kind geboren war, starb die Königin.</p>	<p>⑧ Kaum aber hatte sie einen Bissen davon im Mund, so fiel sie tot zur Erde nieder. Die Zwerglein, wie sie abends nach Haus kamen, fanden Schneewittchen auf der Erde liegen, und es ging kein Atem mehr aus ihrem Mund, und es war tot.</p>
<p>⑨ Es geschah aber, dass ein Königssohn den Sarg auf dem Berg mit dem schönen Schneewittchen darin sah. (...) Der Königssohn ließ ihn nun auf dem Rücken des Pferdes und gingen fort. Da geschah es, dass das Pferd über einen Strauch stolperte, und von dem Schütterm fuhr das giftige Apfelstück aus dem Hals. So öffnete es die Augen und war wieder lebendig. (...) Der Königssohn sagte voll Freude, „Du bist bei mir“, und erzählte, was sich zugetragen hatte,</p>	<p>⑩ Aber Schneewittchen wuchs heran und wurde immer schöner, (...) Als diese einmal ihren Spiegel fragte, „ Spieglein, Spieglein an der Wand. Wer ist die schönste im ganzen Land?“ Und der Spiegel antwortete, „Frau Königin, ihr seid die schönste hier, aber Schneewittchen ist tausendmal schöner als ihr.“ (...) Da rief sie einen Jäger und sprach, „Du sollst es töten und mir ihr Herz mitbringen.“ (...) Der Jäger hatte Mitleid und sprach, „So lauf weg, du armes Kind!“ (...)</p>

<그림 5b>23)

22) 그림은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84s> 에서 캡처하였다.

23) 텍스트는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84s> 에서 영상과 함께 제시되는 텍스트를 직접 기록하고 간추렸다.

<그림 5a>와 <그림 5b>를 활용한 과제 활동이 다 끝난 뒤에는 다 함께 정답을 맞춰보며 텍스트의 의미를 함께 알아본다. 텍스트를 읽을 때는 읽는 목적과 관심도에 따라 읽는 방식이 달라진다. G. Westhoff는 읽기의 개념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자세히 알기 위한 목적으로 상세히 읽기 (detailliertes Lesen= totales Lesen), 어떤 인상을 얻기 위한 목적의 대강 훑어 읽기(globales Lesen= kursorisches Lesen), 특별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의 선택하여 읽기(suchendes Lesen= selegierendes Lesen, selektives Lesen), 그리고 텍스트에서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사항인지를 찾는 목적의 분류하여 읽기(sortierendes Lesen= orientierendes Lesen)이다.²⁴⁾

필자는 본 과제들을 통해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독일어로 된 문학 텍스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며 이미 가지고 있는 선지식을 가지고 동화 텍스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따라서 <그림 5a>와 <그림 5b> 과제에서의 동화 텍스트 읽기 목적은 상세하고 자세하게 읽기가 아닌 대강 훑어가며 분류하여 읽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모든 단어의 의미와 문법적 내용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해석하지 않고 각 문단별로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텍스트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며 그 의미를 추론해낼 수 있게 한다.

만약 상세하게 읽는 것에 목적을 둔 과제를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에게 텍스트 중간 곳곳에 빈 부분이 있는 텍스트를 나눠주고 그 빈칸에 들어갈 문장이나 문단을 따로 제시해서 그것을 해당되는 빈 칸에 찾아 넣는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은 텍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함께 빈 칸에 들어갈 문장이나 문단들을 꼼꼼하게 읽고 해석하며 앞 뒤 문맥을 살피서 해당되는 빈 칸에 알맞게 집어넣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 또한 학습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외국어로

24) G.Westhoff(1997): a.a.O., S.101-102

된 문학 텍스트를 접했을 때 처음부터 상세하게 읽기는 한국어로 된 텍스트이든 외국어로 된 텍스트이든 간에 대단히 높은 집중을 요하는 방식이다. 특히 외국어로 된 텍스트의 이해를 위해 장시간에 걸쳐 집중하여 읽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외국어에 대한 어려움만 더 증폭시키는 길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읽기 globales Lesen로 시작해서 텍스트의 전체적인 의미나 내용을 파악하고,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여 읽기 selektives Lesen를 통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찾아 읽은 뒤, 높은 집중을 요하는 상세히 읽기 detailliertes Lesen 의 순서로 텍스트를 마주하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읽기 후 nach dem Lesen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읽고 이해한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며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과제 형태를 통해서 읽은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텍스트 내용에 관련된 질문에 답하기이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묻고 답하기의 과제로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이해한 뒤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텍스트 내용에 관한 주관식의 문제나 선다형 문항 (Multiple-Choice)인 맞는 것과 틀린 것(richtig/falsch-Entscheidung)을 찾아 체크하는 과제를 제시해서 텍스트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과 같은 과제를 위해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전체 텍스트를 제시하거나 <그림 5a>와 <그림 5b>를 통해서 완성된 간추려진 텍스트의 내용을 다시 읽게 한 뒤,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질문은 교수자가 텍스트나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더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보통 먼저 텍스트 속에서 해당되는 답을 찾으려하지만 텍스트 내용의 이해도에 대한 확인 순서이기 때문에 학습자들 스스로 대답을 텍스트 속 언어가 아닌 본인들의 언어로 재구성해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Bitte lesen Sie den Text und beantworten Sie.

- ① Warum hat die gute Königin ihr Kind `Schneewittchen` genannt?
- ② Wie ist die böse Königin?
- ③ Was fragt die böse Königin ihren magischen Spiegel? Und wie antwortet der Spiegel darauf?
- ④ Welchen Haushalt macht Schneewittchen bei den sieben Zwergen?
- ⑤ Warum begraben die sieben Zwerge nicht Schneewittchen?

<그림 6>

그리고 이러한 연습 과제 후에 <그림 5a>에서의 상황 별 그림을 가지고 각각의 상황의 흐름에 맞는 전체 이야기를 다시 직접 재구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파트너별 또는 그룹별 활동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이 텍스트와 동화의 내용을 떠올려가며 그룹 별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화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독일어 지식과 새롭게 배운 단어 및 문장을 조화롭게 구성시키는 연습을 할 수 있다.

2.2. 동화를 활용한 듣기 학습

의사소통에서 기본적인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듣기는 지금까지의 교수·학습법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보다 독일어권 국가로 직접 가서 현지 생활에 적응하고 현지인들과 부딪히며 자연스럽게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업에서 잠시나마 다루는 듣기과제 활동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더군다나 독일어 수업이 독일어가 아닌 한국어로 이루어진다면 오디오를 통해 잠시나마 듣는 독일어가 전부일 것이다. 그러나 듣기 활동은 외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과

정이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듣기능력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이 듣기텍스트를 이해하고 연습하며 훈련해서 그들의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효과적인 독일어 수업을 위한 듣기 지도 전략을 논해볼 필요가 있다.

바바라 달하우스 Barbara Dahlhaus는 듣는다는 것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듣기(intensives Hören)와 포괄적으로 듣기(extensiv Hören)로 나누고, 포괄적인 듣기를 다시 전체적으로 듣기(globales Hören)과 선택적으로 듣기(selektives Hören)로 나누어 정의했다.²⁵⁾

① 집중적으로 듣기(intensives Hören)란 텍스트의 모든 정보들이 중요하다. 전체 진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디테일한 세부사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세부적으로 듣기(detailliertes Hören 또는 총체적으로 듣기 totales Hören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는 정체되는 구간을 피하기 위해 라디오를 집중해서 듣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한다.

② 포괄적으로 듣기(extensiv Hören)란 텍스트의 모든 정보가 다 동일하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 중 몇 가지 중심이 되는 정보들만 이해하면 된다. 그 중 전체적으로 듣기(globales Hören)는 중심이 되는 정보들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훑어 듣기(kursorisches Hören라고도 한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듣기(selektives Hören)는 듣기 텍스트에서 관심이 있거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보만을 선별해서 듣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듣기(globales Hören)는 아침 출근 전 식사하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들은 뉴스내용 중 중요한 몇 단어만 알아 듣고 전반적인 뉴스의 내용을 파악한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듣기(selektives Hören)의 한 예로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목이 마르던 찰나에 안내방송이 나올 경우, 마실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집중해서 들으려 하고

25) Barbara Dahlhaus(1994): 『Fertigkeit Hören』, Langenscheidt, S.79

나머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처럼 청자는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방식으로 듣기활동을 하지만 보통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모국어로 전략적으로 들을 때와 다르게 외국어에 대해서는 모든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해서 디테일하게 들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외국어 듣기도 모국어로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앞서 읽기 학습을 위한 과제 제시 순서 때와 마찬가지로 듣기 학습을 위해 듣기 전 *vor dem Hören*, 듣는 중 *während des Hörens*, 들은 후 *nach dem Hören*의 세 단계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듣기 전 *vor dem Hören* 단계에서는 텍스트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듣기에 관련되는 그림과 같은 요소를 이용해서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는 것 또는 들을 것을 예상한 것일수록 더 귀로 잘 듣는 경향이 있다.

B. Dahlhaus는 듣기 전의 준비 수단²⁶⁾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의사소통상황 (누가 누구와 무엇에 대해 이야기 하는가?)
- 텍스트의 제목, 테마, 삽화, 텍스트의 종류 등.
- 주제에 관한 사전지식, 배경정보 등.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듣기 전 여러 다양한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단일 그림으로 상황 유추하기, 사건 전개별로 순서 배열하기,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이 적힌 문장이나 그림카드를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 만들어보기 등 다양한 과제 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과제 유형들 중 동화 텍스트를 듣기 수업에 활용할 시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듣기 전 과제를

26) Barbara Dahlhaus(1994): a.a.O., S.62.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려 한다. 본 과제 활동에서 활용하게 되는 듣기 파일²⁷⁾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본격적인 듣기에 앞서 듣기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학습자들에게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위해 교수자는 동화속의 핵심이 되는 장면 중 하나를 <그림 7>과 같이 단일 그림으로 제공한다. 그림 속 노파가 젊고 예쁜 여자에게 사과를 건네는 이 장면은 동화 ‘백설공주 Schneewittchen’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듣기 텍스트에 대한 시각적 정보로서 듣기에 대한 사전 준비 수단이 되어 텍스트 이해를 도와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백설공주 Schneewittchen’에 대한 사전 지식이 활성화되어 어떤 내용을 듣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동화의 이러한 장면은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들었을 때 텍스트 속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지 않고도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7) 유튜브의 다음과 같은 영상을 활용하여 듣기 활동을 시킬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79s>

인터넷이 구비가 안 된 장소일 경우, 교수자가 듣기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https://www.vorleser.net/grimm_schneewittchen/hoerbuch.html 를 통해 미리 준비해 간다.

28) <https://www.youtube.com/watch?v=m90nSpAM5Dg&t=22s> 에서 캡처하였다.

그리고 <그림 7>을 함께 보며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W-Fragen을 사용하여 <그림 8>과 같은 가벼운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질문은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Wer sind sie? 2. Wo sind sie? 3. Was machen sie?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8></p> |
|---|


두 번째는 텍스트의 핵심이 되는 질문을 미리 제시해주는 과제이다. 텍스트의 전개 순서에 맞게 제시되는 질문은 전체적인 텍스트의 전개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고 모르는 어휘를 사전에 미리 습득하여 듣기 활동을 준비할 수 있다. <그림 9>와 같은 질문은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 | |
|--|
| <p>▶ Bitte hören Sie den Text und beantworten Sie die Frage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Warum heißt die Prinzessin `Schneewittchen`? ② Wann ist ihre Mutter gestorben? ③ Wie ist die böse Königin? ④ Was fragt die böse Königin ihren magischen Spiegel? Und wie antwortet der Spiegel darauf? ⑤ Welchen Haushalt macht Schneewittchen bei den sieben Zwergen? ⑥ Was sagt die böse Königin ihrem Jäger?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9></p> |
|--|

세 번째로 제공할 수 있는 듣기 전 활동은 <그림 10>과 같이 그림 순서를 맞추는 것이다. <그림 10>은 읽기 학습을 위한 과제에서도 제공되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서 텍스트는 함께 주어지지 않은 채 그림만 가지고 순서를

맞춰보게 한 뒤, 해당되는 상황마다 내용의 핵심 문장이나 단어를 적어보게 한다. 학습자들의 사전지식이 활용되는 학습활동으로 그룹 별 또는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파트너별 활동이 가능하다.

▶Ordnen Sie die Bilder in der richtigen Reihenfolge.

<p>A)</p> 	<p>B)</p> 
<p>C)</p> 	<p>D)</p> 
<p>E)</p> 	<p>F)</p> 
<p>G)</p> 	<p>H)</p> 
<p>I)</p> 	<p>J)</p> 

<그림 10>29)

29)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79s> 에서 캡처하였다.

(2) 듣는 중 während des Hörens의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듣기 텍스트를 따라갈 수 있게 듣기 과정을 맞춰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듣기(intensives Hören) 활동을 위해 듣고 그리기, 들은 내용을 행동으로 묘사하기, 들으며 텍스트의 빈칸을 채워 넣기, 들으며 받아쓰기, 그리고 포괄적으로 듣기(extensives Hören)을 위한 선다형 문제(Multiple-Choice)의 맞는 것과 틀린 것 찾기, 간단한 W-Fragen에 답하기, 표에 필요한 정보를 듣고 기입하기 등의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그 중 동화 텍스트를 접목한 듣는 중 활동에 활용하기 효과적인 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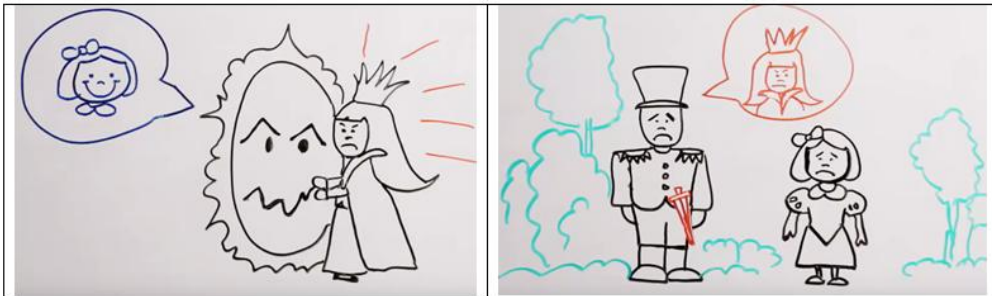
첫 번째는 듣고 그리기이다. 전체 텍스트를 다 들려주기에 앞서 어느 일정 구간을 반복적으로 들려준 뒤,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연상되는 상황을 파트너 또는 그룹별로 상의해서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 예를 들어, 교수자는 <그림 11a>의 텍스트를 들을 수 있는 구간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그림 11b>와 같이 텍스트를 듣고 연상되는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 그림의 개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이런 활동을 위해 그룹 별로 A3정도 크기의 종이 또는 개별적으로 A4와 색연필을 나눠준다. 다 그리고 나서 교수자는 다른 그룹의 그림과 서로 비교해보게 하고 모두가 다 내용을 알맞게 이해했는지 확인한 뒤, 그런 상황에 대해 다 같이 독일어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독일어로 설명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독일어 표현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준다. 이 과제의 목표는 어떤 상황의 텍스트인지 집중해서 듣고 들은 내용을 그림으로 표출해서 확인하는 것에 있다.

Aber Schneewittchen wuchs heran und wurde immer schöner, und als sie sieben Jahre alt war, war sie so schön, wie der klare Tag und schöner als die Königin selbst. Als diese einmal ihren Spiegel fragte, "Spieglein, Spieglein an der Wand. Wer ist die schönste im ganzen Land?" Und der Spiegel antwortete, „Frau Königin, ihr seid die schönste hier, aber Schneewittchen ist tausendmal schöner als ihr.“ Da erschrak die Königin und ward gelb und grün vor Neid. Wenn sie Schneewittchen erblickte, kehrte sich ihr das Herz im Leibe herum, so hasste sie das Mädchen. Und der Neid und Hochmut wuchsen wie ein Unkraut in ihrem Herzen immer höher, dass sie Tag und Nacht keine Ruhe mehr hatte.

Da rief sie einen Jäger und sprach, „Bring das Kind hinaus in den Wald, ich will's nicht mehr vor meinen Augen sehen. Du sollst es töten und mir ihr Herz mitbringen. Der Jäger gehorchte und führte Schneewittchen hinaus, und als er den Hirschfänger gezogen hatte und Schneewittchens unschuldiges Herz durchbohren wollte, fing sie an zu weinen und sprach, „Ach, lieber Jäger, lass mir mein Leben! Ich will in den wilden Wald laufen und nimmermehr wieder heimkommen.“ Und weil sie so schön war, hatte der Jäger Mitleid und sprach, „So lauf weg, du armes Kind!“ Und als gerade ein junger Frischling daher gesprungen kam, stach er ihn ab, nahm das Herz heraus und brachte es zum Beweis der Königin mit.

<그림 11a>30)

▶Hören Sie den Text und zeichnen Sie das Bild.



<그림 11b>31)

두 번째는 텍스트를 들으며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 넣는 과제이다. 이 과제는 텍스트를 통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하게 빈 칸을 만들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사의 성별이나 문장에서의 격에 따른 관사의 형태를 연습한다면 명사 앞의 관사를 지워서 빈칸으로 만들고, 성별에 따른 명사를 연습한다면 관사는 남겨두고 명사 자리를 빈 칸으로 만들 수 있다. 또는 sein동사와 haben동사의 쓰임을 배우기 위해 두 동사

30)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84s> 에서 영상과 함께 제시되는 텍스트를 직접 기록하였다.

31) <https://www.youtube.com/watch?v=ISYyMISgM1g> 에서 캡처하였다.

를 빈 칸으로 만드는 등 다양한 빈칸에 단어 채워 넣기 활동이 가능하다.

필자는 동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사의 과거형을 연습하는 과제를 제시해 보겠다. 이 때, 빈칸의 개수는 텍스트의 속도와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결정한다. 그리고 텍스트와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빈 칸의 동사를 미리 제시할 수 있다. 텍스트를 들으면서 빈 칸의 단어를 적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나란히 연달아서 있는 단어를 모두 빈 칸으로 만들게 될 경우, 첫 번째 단어를 적다가 다음 단어를 못 듣고 놓칠 수 있으므로 연속된 두 단어 중 한 단어만 빈칸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또한 <그림 12>에서는 sein, haben, Modalverben의 과거형은 그대로 두고 일반 동사의 과거형의 대부분을 빈 칸으로 만들었다.

이 과제를 가지고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처음부터 텍스트를 들려주지 않고 그룹 내에서 학습자들끼리 어디에 어떤 단어가 어울리는지 고민해서 적어보게 하는 활동을 먼저 시켜볼 수 있다. 그리고 듣기 활동이 다 끝난 후에는 각 동사의 원형을 알아보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규칙동사가 과거형으로 변환되는 규칙과 불규칙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분리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일 때도 분리 전철은 분리되어 문장의 끝으로 간다는 점을 알려줄 수 있다. 이 과제를 위해 교수자는 해당 텍스트 구간을 최소 두 번 이상 들려주며 필요에 따라 학습자들이 적을 수 있도록 중간에 일시정지를 해가며 속도를 맞춰준다.

32)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84s> 에서 영상과 함께 제시되는 텍스트를 직접 기록하여 과제로 만들었다.

▶ Bitte hören Sie den Text und ergänzen Sie die Verben.

wuchs fragte antwortete erschrak erblickte hasste wuchsen
rief gehorchte sprach stach nahm brachte

Aber Schneewittchen _____ heran und wurde immer schöner, und als sie sieben Jahre alt war, war sie so schön, wie der klare Tag und schöner als die Königin selbst. Als diese einmal ihren Spiegel _____, "Spieglein, Spieglein an der Wand. Wer ist die schönste im ganzen Land?" Und der Spiegel _____, „Frau Königin, ihr seid die schönste hier, aber Schneewittchen ist tausendmal schöner als ihr.“ Da _____ die Königin und ward gelb und grün vor Neid. Wenn sie Schneewittchen _____, kehrte sich ihr das Herz im Leibe herum, so _____ sie das Mädchen. Und der Neid und Hochmut _____ wie ein Unkraut in ihrem Herzen immer höher, dass sie Tag und Nach keine Ruhe mehr hatte.

Da _____ sie einen Jäger und sprach, „Bring das Kind hinaus in den Wald, ich will's nicht mehr vor meinen Augen sehen. Du sollst es töten und mir ihr Herz mitbringen. Der Jäger _____ und führte Schneewittchen hinaus, und als er den Hirschfänger gezogen hatte und Schneewittchens unschuldiges Herz durchbohren wollte, fing sie an zu weinen und _____, „Ach, lieber Jäger, lass mir mein Leben! Ich will in den wilden Wald laufen und nimmermehr wieder heimkommen.“ Und weil sie so schön war, hatte der Jäger Mitleid und sprach, „So lauf weg, du armes Kind!“ Und als gerade ein junger Frischling daher gesprungen kam, _____ er ihn ab, nahm das Herz heraus und _____ es zum Beweis der Königin mit.

<그림 12>32)

(3) 들은 후 nach dem Hören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집중해서 듣고 기억해서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정도가 기억력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듣기 과제는 가능한한 듣기 전과 듣는 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들은 후의 과제로 몇 가지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듣기 텍스트와 그림 연결하기, 문장을 순서대로 맞추기, 맞는 것과 틀린 것 찾기, W-Fragen에 답하기 등이 있지만 이들 과제 대부분은 듣는 중의 과제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듣기 전 vor dem Hören 단계에서 언급했었던 아래의 W-Fragen <그림 13>은 듣는 중에 답하기보다 들은 후에 대답을 적기에 유용하다.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파트너 별로 질문에 답을 적어볼 수 있으며 텍스트 내용을 올바르게 잘 이해했는지 확인 작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 Bitte hören Sie den Text und beantworten Sie die Fragen.

- ① Warum heißt die Prinzessin `Schneewittchen`?
- ② Wann ist ihre Mutter gestorben?
- ③ Wie ist die böse Königin?
- ④ Was fragt die böse Königin ihren magischen Spiegel? Und wie antwortet der Spiegel darauf?
- ⑤ Welchen Haushalt macht Schneewittchen bei den sieben Zwergen?
- ⑥ Was sagt die böse Königin ihrem Jäger?

<그림 13>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동화에 대한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지식과 들은 텍스트의 내용을 결합하면 위와 같은 질문에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지 않아도 된다. 학습자들은 텍스트 속의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독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문장 구성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질문은 듣기 전 단계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2.3. 동화를 활용한 쓰기 학습

오늘날 외국어 학습자들은 기존의 문법 위주의 수업대신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기본으로 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목표어를 구사하는 외국인과의 접촉을 최고의 학습 방법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의사소통하고자 할 때 학습자들 스스로도 목표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알아야 하고 학습자들이 완벽하지 않은 실력으로 구사하는 언어를 인내하고 들어주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화 상대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긴장하고 두려움을 느끼거나 마음먹은 대로 언어가 구사가 안 될 때 쉽게 포기해 버릴 수 있어서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은 반드시 듣기와 말하기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베르트 카스트 Bernd Kast는 쓰기는 읽기, 듣기, 말하기 영역과 분리된 영역이라기보다 나머지 세 영역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를 보조해 준다³³⁾고 하였다. 학습자들은 쓰기를 통해서 동시에 속으로 말하기를 하게 되고, 읽기와 쓰기의 관계 또한 매우 긴밀해서 쓰기를 하면서 읽은 글자는 읽을 때 더 빠르게 지각되며 글자의 모양이 각인되는 것이다. 이처럼 쓰기는 읽기, 듣기, 말하기 영역의 학습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로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역할로서도 문자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의도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쓰기 능력을 발달시켜 주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세 가지 영역인 읽기, 듣기, 말하기 기능과 더불어 상호보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Kast는 의사소통적이고 창조적인 쓰기 능력을 길러주는 연습 영역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³⁴⁾로 구분하였다.

- ① 글쓰기를 준비하는 연습 vorbereitende Übungen,
- ② 글을 짓는 연습 aufbauende Übungen,
- ③ 글을 조직하는 연습 strukturierende Übungen,
- ④ 자유롭게 창조적인 글쓰기 freies, kreatives Schreiben,

33) Bernd Kast(1999): 『Fertigkeit Schreiben』, Langenscheidt, S.21
 Die Aktivitäten Hören, Sprechen, Lesen und Schreiben sind eng miteinander verbunden und unterstützen sich gegenseitig.

34) Bernd Kast(1999): a.a.O., S.34

⑤ 의사소통을 위한 글쓰기 kommunikatives Schreiben.

이 들 다섯 가지 영역은 각각의 연습 영역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다를 뿐, 서로 연결되어 보완해주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들 영역에 관련되는 다양한 쓰기 연습 활동 과제를 토대로 앞서 읽기와 듣기 연습 단계에서처럼 쓰기 전 vor dem Schreiben, 쓰는 중 während des Schreibens, 쓰기 후 nach dem Schreiben의 세 단계로 나누어 동화 텍스트를 활용한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쓰기 전 vor dem Schreiben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위해 준비하는 연습 과제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글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 산출을 위한 어휘를 준비하고 선지식을 활성화시키며 알맞은 맞춤법 사용을 연습하게 된다. 어휘는 언어에서 말하기를 위해서나 쓰기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의 부족은 특히나 쓰기 과정에서 큰 방해가 된다. 따라서 먼저 학습자들의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끝말잇기, 학습자마다 각각 한 단어씩 말하며 문장으로 이어가기, 단어의 철자로 문장 만들기, 그리고 텍스트의 길이가 길지 않을 땐 파트너끼리 서로 문장을 읽어주고 받아 적기 등과 같은 연습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그림 14>와 같이 Wortigel 이라고도 불리는 연결그림 Assoziogramm을 이용하여 주제에 관련된 단어나 그림을 제시하고 그것에 연상되는 단어들을 모아보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때 떠오르는 단어나 표현을 학습자들이 아직 독일어로 다 적을 수 없을 시 그림을 그려서 묘사할 수 있다. 이 작업은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더 다양한 표현들을 모으기 위해 파트너별 또는 그룹별 활동을 추천한다.

35) <https://www.youtube.com/watch?v=m90nSpAM5Dg&t=1s> 에서 캡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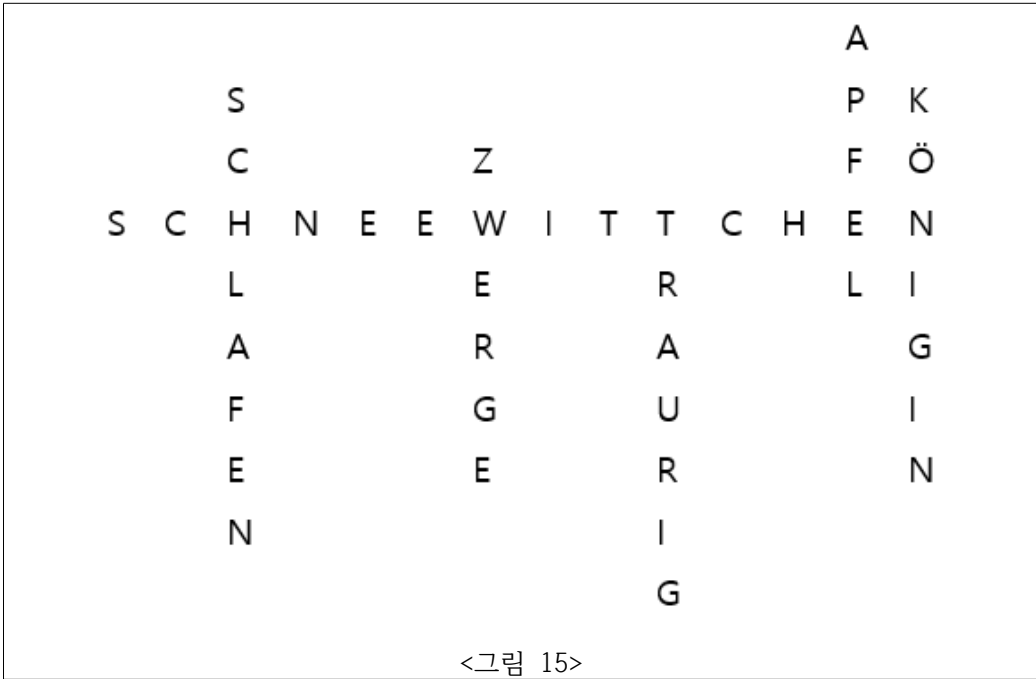
▶ Was fällt Ihnen zu dem Bild ein? Sammeln Sie Wörter.



<그림 14>³⁵⁾

필자는 이 과제의 가운데에 그림 대신 ‘Schneewittchen’을 적을 수 있지만 학습자들에게 아직 독일어로 된 ‘Schneewittchen’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친근함을 줄 수 있는 그림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해당 그림 속의 일곱 명의 난쟁이들과 유리관 속에 잠들어 있는 여자를 보고 백설공주를 유추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선지식을 활용하여 과제 속 그림에 더욱 쉽게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거나 그려볼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에 더 흥미를 가지고 과제에 임할 수 있어서 본격적인 쓰기 활동으로 들어가기 위한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

또한 이 작업이 끝난 뒤, 교수자는 칠판에 <그림 15>와 같이 ‘SCHNEEWITTCHEN’을 적고 학습자들이 파트너 또는 그룹별로 그림에 함께 모았던 단어들을 다시 각각의 칠판에 함께 적으며 단어의 의미를 알아본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학습자들이 몰랐던 단어들이나 백설공주가 독일어로 ‘Schneewittchen’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다.



<그림 15>

이렇게 동화에 대한 기본적인 어휘를 모았으면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넘어간다. 이 단계는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하나의 텍스트로 발전해가는 과정으로서, 교수자는 시각적으로 상황별 그림을 <그림 16>과 같이 함께 제시해서 그림 속 상황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그림 16>을 크게 복사하고 잘라서 나눠준다. 학습자들은 사건 순서에 맞게 배열한 뒤, 그룹 별로 함께 의논해서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어서 동화 속 상황을 재구성한다. 이 때, 학습자들의 문법지식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교수자가 기본적인 문장의 틀을 정해줄 수 있다.



36)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84s> 에서 그림을 캡처한 뒤, 직접 말풍선을 넣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과제는 <그림 17>과 같은 인물 묘사하기이다. 동화 속 등장인물에 관한 묘사를 위해 학습자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의 인물 소개서를 만들어본다. 개별적으로 과제 활동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색연필과 종이를 나눠준다. 인물 묘사하기를 위해 정해진 틀은 없으며 동화 속 내용에 근거해서 글쓰기를 해도 좋고 학습자들의 판타지를 첨가해서 새로운 특징의 인물로 묘사해도 좋다. 텍스트 쓰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문장들 위주로 텍스트를 구성하고 학습자들의 선지식 및 상상력이 가미된 과제활동으로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글쓰기에 흥미를 일깨워줄 수 있다.

▶ Bitte zeichnen Sie einen Steckbrief von einer Spielfigur und beschreiben Sie.

	<p>Name: <i>Schneewittchen</i></p> <p>Spitzname: <i>Schlafmütze</i></p> <p>Augen: <i>grün, blau</i></p> <p>Haare: <i>schwarz</i></p> <p>Größe: <i>155 cm</i></p> <p>Hobby: <i>kochen, reiten, singen</i></p> <p>Charakter: <i>unschuldig, faul, lustig</i></p>
<p>Das ist Schneewittchen. Schneewittchen ist Prinzessin in einem weit entfernten Land. Sie hat einen Spitznamen 'Schlafmütze', weil sie sehr gern und viel schläft. Ihre Augen sind grün und blau. Ihre Haare sind schwarz und kurz. Sie ist klein und nur 15 Jahre alt. Ihre Stiefmutter hasst sie und will Schneewittchen nicht mehr im Schloss sehen. Die böse Stiefmutter möchte sie töten, deshalb ist Schneewittchen in den wilden Wald weggelaufen. Jetzt wohnt Schneewittchen bei den sieben Zwergen im Wald. Sie kocht gern und macht den Haushalt bei den Zwergen. Sie ist ein bisschen faul aber sehr lustig. (...)</p>	

<그림 17>³⁷⁾

37) 그림은 <https://www.youtube.com/watch?v=ISYyMISgM1g> 에서 캡처하고 문장은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 필자가 직접 적은 것이다.

(2) 쓰기 중 während des Schreibens 단계에서는 글을 조금 더 복잡하게 구성해 나가며 조직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본격적인 글쓰기 전 단계에서 동화의 내용과 인물에 관해 정해지지 않은 틀 속에서 자유롭게 써보는 연습을 했다면 본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텍스트가 주어지고 그 텍스트를 읽은 후 대화로서 하나의 이야기 만들기, 등장인물의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글쓰기, 텍스트의 결말 이어서 쓰기, 텍스트의 처음과 끝 내용만 제시하고 가운데 내용 써보기, 요약하기, 그림을 보고 이야기 만들기 등의 연습을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텍스트나 그림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해서 글을 조직하게 된다.

특히, 동화 텍스트에서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동화의 관점을 바꾸어 글쓰기를 하면 관점이 항상 동화에서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화자에서 동화 속 등장인물의 입장으로 바뀐다. <그림 18>과 같은 텍스트에서 사용되던 3인칭은 ‘나’의 관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1인칭이 되고 동화 속의 과거시제 또한 현재형이나 현재완료형으로 바뀌서 써보는 연습이 가능하다.

▶ Bitte lesen Sie den Text und schreiben Sie ihn neu aus der Perspektive von Schneewittchen.

Es war einmal mitten im Winter, und da saß eine Königin an einem Fenster.
 Sie wünschte sich ein Kind zu haben und bald bekam sie ein Kind.
 Das Kind war so weiß wie Schnee, und ward darum „Schneewittchen“ genannt.
 Aber wie das Kind geboren war, starb die Königin.
 Über ein Jahr nahm sich der König eine andere Frau.
 Es war eine schöne Frau, aber sie war stolz und übermütig.
 Sie hatte einen wunderbaren Spiegel.
 Sie fragte den Spiegel, „Spieglein, Spieglein an der Wand, wer ist die schönste im ganzen Land?“
 So antwortete der Spiegel, „Frau Königin, ihr seid die schönste im Land.“
 Aber Schneewittchen wuchs heran und wurde immer schöner.
 An einem Tag fragte die Königin ihren Spiegel, „ Spieglein, Spieglein an der Wand.
 Wer ist die schönste im ganzen Land?“
 Und der Spiegel antwortete, „Frau Königin, ihr seid die schönste hier,
 aber Schneewittchen ist tausendmal schöner als ihr.“
 Da erschrak die Königin und ward gelb und grün vor Neid.
 (.....)

☞ *Es war einmal mitten im Winter, und da saß eine Königin an einem Fenster.*

Sie wünschte sich ein Kind zu haben und bald bekam sie ein Kind.

Das Kind war so weiß wie Schnee, und ward darum „Schneewittchen“ genannt.

Das bin ich.

Aber als ich geboren bin, ist meine Mutter gestorben.


(...)

<그림 18>

또한 자유롭고 창조적인 글쓰기 연습을 위해 <그림 19>와 같이 동화내용의 결말을 다르게 전개시킬 수 있게 처음이나 중간 단락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창의성을 발현시키게 할 수 있다. 창조적인 글쓰기는 학습자들에게 낯설 수 있지만 혼자가 아닌 파트너 또는 그룹별로 함께 한다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이야기 전개와 함께 흥미로운 글쓰기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 Bitte schreiben Sie die Geschichte weiter.

(...)
 Aber Schneewittchen wuchs heran und wurde immer schöner.
 An einem Tag fragte die Königin ihren Spiegel, " Spieglein, Spieglein an der Wand.
 Wer ist die schönste im ganzen Land?"
 Und der Spiegel antwortete, „Frau Königin, ihr seid die schönste hier,
 aber Schneewittchen ist tausendmal schöner als ihr.“
 Da erschrak die Königin und ward gelb und grün vor Neid.
 Da rief sie einen Jäger und sprach, „Du sollst es töten und mir ihr Herz mitbringen.“
 Der Jäger gehorchte und führte Schneewittchen hinaus.



<그림 19>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서 쓰는 과제 활동은 다른 식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4명이 한 조를 이룬 그룹이 A,B,C,D 네 그룹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들 전체에게 교수자가 <그림 20>과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각 그룹 별로 첫 1-2 문장을 함께 적어보게 한다. A 그룹에서 적은 종이는 B 그룹으로, B 그룹은 C 그룹에게, C 그룹은 D 그룹에게, D 그룹은 A 그룹에게 넘기게 한다. 다른 그룹의 종이를 받은 그룹은 앞 문장에 이어서 또 다른 1-2 문장을

적는다. 이 때,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동화 속 원래의 스토리대신 새롭고 창의적인 스토리를 구성해 보게 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그룹의 종이가 한 바퀴 다 돌게 되면 마지막에 자신들이 첫 1-2문장을 적었던 종이를 다시 받았을 때,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을 수 있다. 같은 그림을 보고도 네 그룹의 이야기가 마지막엔 어떻게 완성이 되어 있는지 그룹에서 함께 읽어본 뒤, 수업에서 발표를 시켜서 다 같이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38)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84s> 에서 캡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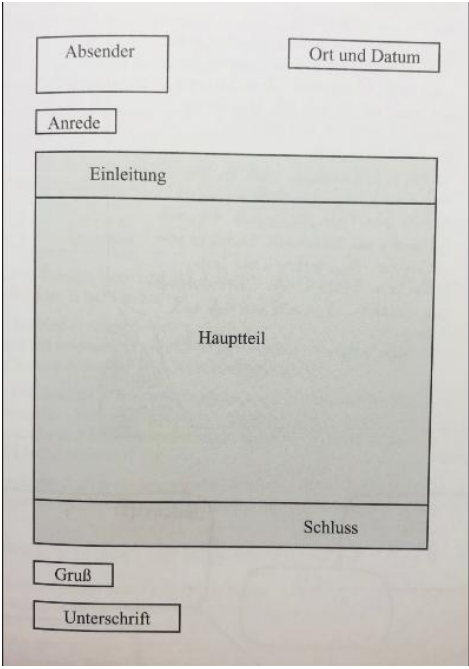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글쓰기 단계에서는 실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를 준비하는 활동 단계이다. 편지나 엽서 쓰기, 양식 쓰기, 이력서 쓰기, 보고서 쓰기, 회의록 쓰기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가 무엇을 기대하고 나에게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글을 쓰는지 등을 생각하며 독자와 내 관계에 맞는 형식을 고려해서 글쓰기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화 속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는 활동을 해볼 수 있다. 편지를 받는 사람과 나의 관계에 따라 Sie를 사용할지 du를 사용할지 결정하고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끝맺음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그림 21>, <그림 22>와 같은 형식을 알려준다. 학습자들은 제시된 편지 형식에 따라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는 활동을 한다.

39) Bernd Kast(1999): a.a.O., S.157

40) Bernd Kast(1999): a.a.O., S.147

<p>Anrede: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Sehr geehrter Herr ..., / Sehr geehrte Frau ..., Lieber Herr ..., / Liebe Frau ..., Lieber ..., / Liebe ..., Hallo,</p>
<p>Gruß: Mit freundlichen Grüßen Mit freundlichem Gruß Herzliche Grüße Herzlichen Gruß</p> <p>Ihr/Ihre ... dein/deine ...</p>

<그림 21>39)



<그림 22>40)

(3) 쓰기 후 nach dem Schreiben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쓰기 활동을 하면서 범한 오류를 수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오류를 통해 잘못된 점을 고치고 개선하며 새로운 것을 알아가게 된다. 외국어로 글쓰기를 할 때 특히 학습자는 철자를 비롯해서 접속사, 시제, 문장구조와 어순 등 다양한 문법적 실수를 범하게 된다. 오류 수정 또한 목표하는 글쓰기가 완성되기 위한 연습 유형의 한 단계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틀릴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갖기 위한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과정 중심의 쓰기는 쓰기의 결과물이 아닌 고쳐나가는 과정에서의 쓰기를 중요시하고 글쓰기의 순환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에 특히 외국어 쓰기에서 오류 수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⁴¹⁾ 그러나 학습자들은 독일어로 글쓰기에 여러 가지 문법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범한 오류를 인지하고 스스로 수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교수자나 다른 동료 학습자들의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 B. Kast는 오류 수정을 위한 조언 중 한가지로 절대 학습자들의 실수를 빨간색으로 수정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는 학습자들의 글쓰기에 대한 용기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방해하는 길이다. 따라서 오류 수정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 첫 번째로, 학습자들 스스로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알고 다음부터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쓰기 중 단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오류에 밑줄을 그어주되, 학습자 스스로 그 부분을 고칠 수 있게 별도의 수정작업을 해주지 않는다. 단지 학습자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거나 더 나은 표현법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교수자가 수정 작업 및 첨삭을 해준다.

41) 허은주(2011): 「고등학교 독일어 쓰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3쪽.

두 번째는 교수자가 학습자 개개인의 오류를 전체 동료 학습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목해서 수정하지 않고 모든 학습자들의 오류들을 모아서 모두가 비슷하게 범하거나 중요하게 다뤄져야하는 실수들에 대해 언급해주며 그 부분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연습문제를 제공해 준다.

세 번째는 파트너 또는 그룹 내에서 수정작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들 스스로 다른 동료 학습자들의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기회를 갖게 하면 쓰기 능력이 약한 학습자는 더 잘하는 학습자를 통해 배울 수 있고, 잘하는 학습자는 자신보다 못하는 학습자에게 그 오류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본인 또한 더 확실하게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파트너끼리 서로 고쳐주는 작업은 학습자들이 본인들의 텍스트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관심도나 흥미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의 학습 단계이기 때문에 학습자들 모두에게 같은 텍스트를 나눠주고 파트너나 그룹별로 누가 가장 많은 실수를 발견해내는지 겨뤄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그룹별로 여러 다양한 유형의 실수를 범한 텍스트를 여러 장 나눠주고 이 중에서 중요한 실수와 덜 중요한 실수를 정해서 발표하고 그 이유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네 번째는 스스로 각자의 텍스트를 읽어보며 실수를 찾고 고쳐보게 하는 것이다. 본인이 범한 실수는 눈에 잘 안 띄게 마련이지만 스스로 찾아서 고친 실수일수록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든지 덜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작업은 교수자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 작업이 거쳐져야 한다. B. Kast는 학습자 스스로 하는 수정작업⁴²⁾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실수는 불필요한 실수 „unnötige Fehler“
- 도움이 필요한 실수는 불가피한 실수 „unvermeidbare Fehler“

42) Bernd Kast(1999): a.a.O., S.177

- Fehler, die ich selbst korrigieren kann („unnötige Fehler“)
- Fehler, bei denen ich Hilfe brauche („unvermeidbare Fehler“)
- Fehler, bei denen ich etwas lerne („produktive Fehler“)

-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실수는 생산적인 실수 „produktive Fehler“

교수자가 이러한 수정 방법에 입각하여 쓰기 과제를 통해 범해진 오류를 개선시킬 수 있게 한다면 학습자들도 독일어로 범하게 되는 본인들의 실수에 큰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2.4. 동화를 활용한 말하기 학습

하나의 지구촌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국제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들과의 만남이 빈번해졌고 이에 따라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오래다. 그리고 이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중 특히 듣기와 말하기의 음성 언어 능력 배양에 외국어 학습의 목표가 치중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막상 목표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과 직접 만나더라도 학습자들 스스로 자신의 완벽하지 않은 외국어 구사 능력에 자신감이 없고 긴장해서 원하는 대로 언어가 구사되지 않을 시 쉽게 포기하고 말하기를 멈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아직 외국어를 학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국어로 말할 때 정확하게 말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유창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직접 단어와 문장을 가능한 한 자주 입에서 내뱉을 때 비로써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하이데 샷츠 Heide Schatz는 실제로 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발만 Bahlmann의 삽화를 빌려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우리는 읽는 것으로부터 10퍼센트를, 듣는 것으로부터 20퍼센트를, 보는 것으로부터 30퍼센트를 말하는 것으로부터 70퍼센트를, 그리고 직접 하는 것으로부터 90퍼센트를 배운다.⁴³⁾ 학습자들은 외국어를 읽고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직접 말하고 무언가를 직접 해봄으로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실제로 말을 내뱉게 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과 학습 자료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먼저 교수자는 외국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특징과 실제로 학습자들을 말하게 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외국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특징⁴⁴⁾은 다음과 같다.

① 항상 몸의 언어가 동반된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표정이나 행동을 동반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 분명하게 표현한다.

② 말하는 것은 소리로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음이 중요하다.

③ 글로 쓰는 것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우고 수정작업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내뱉어진 말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우거나 수정할 수 없다.

④ 말하는 것은 시간의 압박에 영향을 받는다. 학습자들은 말하면서 어떤 단어와 문장을 사용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옳은 문장인지 고민하다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뒤죽박죽 엉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외국어로 말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⑤ 말할 때 사전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⑥ 말하면서 문법적 실수가 발생되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특징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을 실제 말하기의 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들 점⁴⁵⁾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책걸상이 교수자만을 바라보는 방

43) Heide Schatz(2006): 『Fertigkeit Sprechen』, Langenscheidt, S.65

Wir lernen 10% von dem, was wir lesen, 20% von dem, was wir hören, 30% von dem, was wir sehen, 70% von dem, was wir sagen, 90% von dem, was wir selbst tun.

44) Heide Schatz(2006): a.a.O., S.33 의 내용을 간추렸다.

45) Heide Schatz(2006): a.a.O., S.49-50 의 내용을 간추렸다.

향으로 놓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른 동료 학습자들과 말하기 위해 목이나 몸을 돌려가며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서로 마주보며 서로의 말에 집중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교실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학습자들이 틀렸거나 바보스러운 말을 했을지라도 그 점을 다른 동료 학습자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는 분위기에서 더욱 잘 말하게 되어있다.

③ 말하다가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학습자들을 격려해주고 배우는데 있어서 실수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주어야 한다.

④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실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학습자들이 말하면서 실수를 할 때마다 계속 고쳐주는 대신 그 부분에 대해 메모를 해주고 조용히 언급해주는 것이 좋다.

⑤ 말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한다. 말하는데 겁이 나면 오히려 침묵하는 법이다.

⑥ 학습자들 스스로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격려해 주어야 한다.

⑦ 흥미로운 대화주제나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⑧ 대화가 교수자 대 학습자들로 이루어지기보다 학습자들 간에 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⑨ 가능한 한 많은 활동이 파트너 또는 그룹별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⑩ 많은 역할극을 할 수 있게 한다. 역할극을 통해 학습자들은 그들의 말하기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⑪ 앉은 상태에서 말하든, 서서 말하든 제한을 두지 말고 알아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말하기의 특징과 말하기 수업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들을 기반으로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말하기 전 vor dem Sprechen, 말하는 동안 während des Sprechens, 말하기 후 nach dem Sprechen의 세 단계에 따른 다양한 연습 과제를 동화를 활용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말하기 전 vor dem Sprechen 단계에서는 구두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어로 토론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어휘와 숙어가 필요하듯이 말로서 의사소통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준비는 필수적이다. 발음 연습, 연결그림 Assoziogramm을 통한 어휘정리, 단어로 이야기 만들기, 단어 기억해서 이어말하기, 유용한 표현정리, 그림 묘사하기, 알아맞히기 게임, 카드게임, 주사위게임 등이 이 단계에 속한다.

그 중 첫 번째로 제시할 연습 과제 유형은 동화에서 다뤄지는 어휘를 알아보기 위한 연결그림 정리하기이다. 앞서 쓰기 연습 유형에서도 언급되었던 방법으로 본격적인 말하기에 앞서 주로 사용될 어휘를 알아보기 위한 준비 과제로 적절하다. <그림 23>과 같은 연결그림으로 어휘를 정리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직접 입으로 단어를 내뱉으면 말하기 할 때 그 단어를 직접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지게 된다. 아래의 <그림 23>은 쓰기 유형에서 <그림 14>로 다루어진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제시하였다.

▶ Was fällt Ihnen zu dem Bild ein? Sammeln Sie Wör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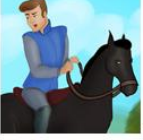


<그림 23>46)

두 번째로 제시할 과제유형은 단어로 이야기 만들기이다. 3-5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각각 ‘백설공주 Schneewittchen’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1-2개씩 이야기하고 함께 적은 뒤,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동화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 때, 학습자들이 구성한 동화의 스토리는 원래의 동화내용과 같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는 인물 또는 그림 묘사하기이다. 이 과제를 위해 <그림 24>와 같이 동화 속 등장인물과 그 밑에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종이를 잘라서 그룹 별로 나눠준다. 학습자들은 각각의 등장인물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그 밑에 세 문장씩 적어본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이는 뒤집어서 섞는다. 학습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등장인물 카드를 집어 들고 그 학습자는 예Ja/아니오Nein로 대답한다. 나머지 동료 학습자들은 그 인물을 맞추기 위해 질문을 한다. 이 때 질문은 학습자들이 그룹에서 함께 인물 묘사하며 적었던 문장들을 Ja/Nein Frage로 만들어서 질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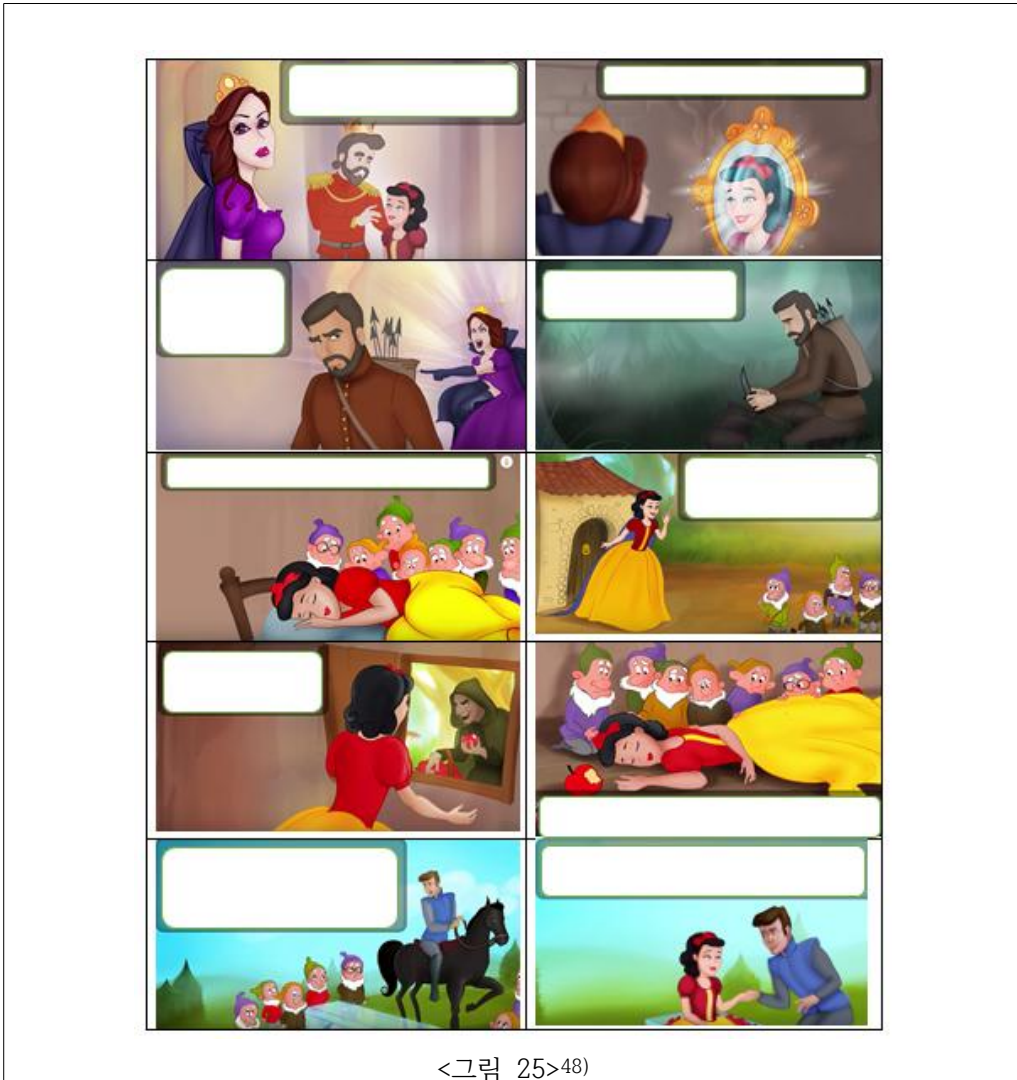
46) <https://www.youtube.com/watch?v=m90nSpAM5Dg&t=1s> 에서 캡처하였다.

47)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84s> 에서 캡처하였다.

 <p>der magische Spiegel</p> <hr/> <hr/> <hr/> <hr/>	 <p>Schneewittchen</p> <hr/> <hr/> <hr/> <hr/>
 <p>die böse Königin</p> <hr/> <hr/> <hr/> <hr/>	 <p>der Prinz</p> <hr/> <hr/> <hr/> <hr/>
 <p>der Jäger</p> <hr/> <hr/> <hr/> <hr/>	 <p>die sieben Zwerge</p> <hr/> <hr/> <hr/> <hr/>

<그림 24>47)

또한 아래와 같이 인물묘사하기 대신에 동화 속 장면을 보여주고 그 상황에 대해 묘사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아래에 제시된 <그림 25>는 쓰기 학습 과제에서도 제시됐었던 <그림 16>과 같은 것으로 해당 그림을 보며 학습자들이 구두로서 자유롭게 그림 속 상황을 묘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48)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84s> 에서 그림을 캡처한 뒤, 직접 말풍선을 넣었다.

그리고 이 연습 과제의 그림은 상황을 맞추는 놀이 활동으로 접목할 수 있다. 학습놀이는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과정에 동원되는 수단으로 외국어 수업에서 놀이가 학습수단으로 사용되면 무엇보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Grätz(2001:6))⁴⁹⁾. 따라서 학습자들이 그룹에서 자유롭게 <그림 25>의 장면들을 가지고 이야기로 구성을 했던 것을 교실 내의 모든 학습자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이 활동으로 연계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 한 명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림이나 행동으로 동화 속 장면을 묘사하면 나머지 동료 학습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독일어로 알아맞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일어로 말하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다.

(2) 말하는 동안 während des Sprechens 에는 실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문 연습, 질문하기와 인터뷰하기, 토론하기, 설명하기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오류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으로 대화 도중에 서로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시 교수자는 되도록 오류를 지적하지 않는다. 교수자의 잦은 간섭과 관찰은 학습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말하는데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중요한 오류에 대해서만 언급해주도록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여러 다양한 대화문이나 문장을 만들어보며 토론할 때 교수자는 조용히 돌아다니며 문장 구성에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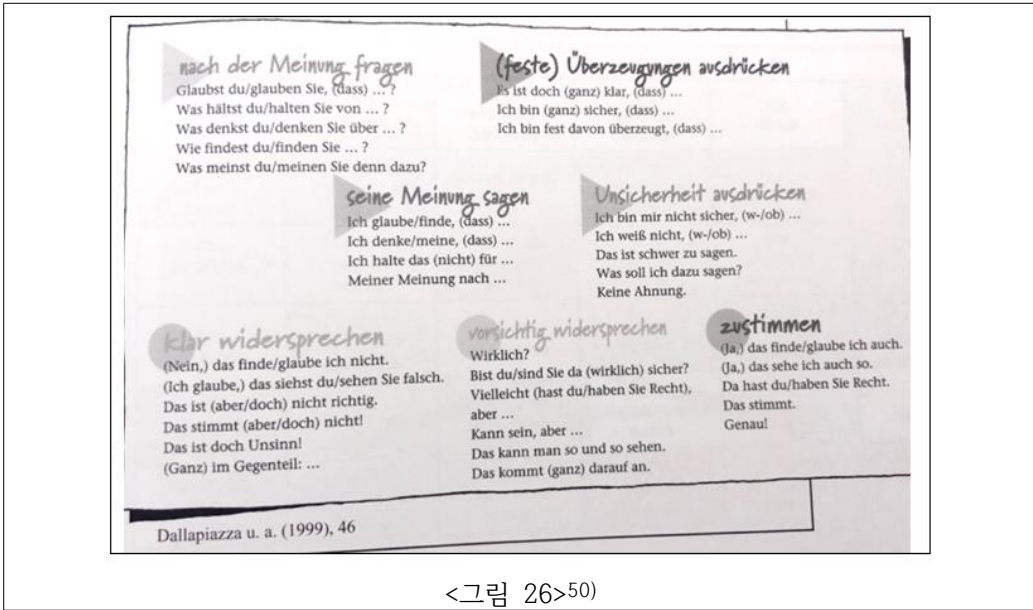
이 단계에서 동화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을 위해 첫째, 단어와 문장만으로 상황을 묘사하는 단계를 넘어서 학습자들 스스로가 동화 속 주인공

49) 김미승(2007): 「에듀테인먼트 관점에서 살펴본 독일동화의 외국어 학습 활용방안」,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21집, 53쪽.

공이 되어 직접 대화문을 구성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때, 대화문은 동화의 원래 내용과 같을 필요는 없다. 학습자들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스토리를 각색하여 대화문을 만든다면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터뷰하기이다. 동화 속 등장인물들에게 왜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보고 그에 맞는 대답도 직접 구성해보는 것이다. 교수자는 학습자들과 함께 동화 속 내용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모아본다. 예를 들어, 나쁜 왕비는 사냥꾼을 시켜서 백설공주를 죽이고 심장을 가져오라고 하였지만 사냥꾼은 공주를 살려주고 그 대신 멧돼지 새끼를 잡아서 심장을 꺼내갔다. 사냥꾼은 왜 그렇게 하였는가? 심장이 백설공주의 것이 아님을 들리게 되는 것이 두렵지 않았는가? 만약 들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사냥꾼에게 해볼 수 있다. 파트너와 함께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서 질문하고 대답하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토론하기이다. 동화 속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눠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죽여야 하나 아니면 살려두어야 하는가, 백설공주는 늑은 노파의 방문을 외면해야 하나 아니면 문을 열어줘야 하나와 같은 찬반의 의견이 나뉠 수 있는 토론 상황을 제시한다. 그리고 같은 의견을 가진 학습자들끼리 모여 앉게 한 뒤, 그룹 내에서 토론에서 주장할 의견을 함께 모아보게 한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학습자들과 <그림 26>과 같은 의견 제시 표현 리스트를 제공한다. 교수자는 이 리스트의 표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예시를 들어 소개해준 뒤, 학습자들은 그 표현들을 직접 사용한 문장을 구성하며 토론을 준비한다. 준비가 끝나면 그룹 대 그룹으로 다양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그림 26>50)

(3) 말하기 후 nach dem Sprechen 에는 모든 말하기 활동이 끝난 그 이후의 단계가 될 수도 있지만 학습자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여러 표현들을 직접 활용하며 확인하는 단계가 될 수 있다. 동화는 여러 다양한 등장인물이 존재하고 학습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의 전개대신 흥미로운 스토리로 새롭게 구성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학습자들이 직접 짧게나마 연극을 준비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장소 여건이 된다면 각 그룹 별로 조용한 곳에 따로 모여서 연극을 각색하고 직접 촬영해서 수업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학습자들은 화면을 통해 들리는 자신의 발음을 객관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극 활동은 학습자들의 수동적인 태도를 능동적인 태도로 바꿔서 수업에 적극성을 띠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어떤 문장을 어떤 감정과 몸짓을 통해 표현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창의적인 활동이 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50) Heide Schatz(2006): 『Fertigkeit Sprechen』, Langenscheidt, S.87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앞서 읽기 학습과 듣기 학습의 마지막에도 언급됐듯이 W-Fragen을 활용하여 배운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때 언급될 W-Fragen은 교수자가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에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독일어로 대답을 이끌어낸다.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동화 속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나라면 어땠을지에 대해 서로 돌아가며 독일어로 설명해보며 자신의 생각을 직접 표현해보므로써 말하기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3. 동화 “백설공주”를 접목한 실제 수업 모델

앞에서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인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동화텍스트를 활용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 네 가지 기능 모두 단독으로 각 기능을 향상시키는 과제 방안도 있지만 독일어로 읽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쓰기 활동이 보조수단이 되기도 하고 쓰기 활동 때 말하기 활동이 보조적 역할을 해주는 등 각각의 영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보조해주는 방안도 있었다. 본 장에서는 어느 한 기능의 학습에만 치우치지 않게 앞에서 언급된 다양한 과제들을 서로 조화롭게 활용하는 실제 수업 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실제 수업이 들어가기 전 교수자는 학습자들을 어떤 학습목표에 도달하게 할 것인지 학습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학습목표란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교수자가 설계한 수업이 끝났을 때 학습자들이 도달하게 될 목표지점이다. 학습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먼저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고 무엇을 이미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수업 전에는 모르거나 못했지만 수업

후에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서 학습자들의 지식이나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교수자가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순서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고 자료를 활용할 것인지 수업의 순서를 정하게 된다.

페터 빔멜 Peter Bimmel, 베른트 카스트 Bernd Kast, 게아트 노이너 Gerd Neuner는 수업을 네 단계로 이루어지게 설정하고 각 단계 별로 이루어져야 할 점⁵¹⁾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수업에서 다루게 될 주제에 대해 학습자들의 선지식을 활성화 시켜 동기를 부여시키고 수업으로 도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들이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사진이나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 등을 활용 또는 가벼운 질문들을 통해 그 다음의 단계에서 제시될 텍스트나 대화문 등을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수업에서 듣게 되거나 읽게 될 텍스트, 사진, 도표 등을 소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문법 규칙을 다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대신 새로운 단어나 문장구조, 언어 형식 등의 예문과 텍스트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통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텍스트를 세부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단락 별로 나누어진 텍스트를 받아서 순서에 맞게 정렬하기, 텍스트를 읽고 맞는 것과 틀린 것 고르기, 오디오 들으며 동시에 텍스트를 읽으며 순서 맞추기 등과 같은 과제가 이 단계에 속한다.

세 번째는 두 번째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깊게 다루지 않았던 텍스트 속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다루며 그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단어나 문장의 의미 파악은 교수자가 학습자들이 모르는 단어와

51) Peter Bimmel, Bernd Kast, Gerd Neuner(2011): 『Deutschunterricht planen』, Langenscheidt, S.71-112의 내용을 간추렸다.

문장에 대해 일일이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일단 텍스트 속에서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해볼 수 있게 한 뒤, 그 의미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학습자들에게도 유용한 연습이 될 수 있다. 교실이 아닌 곳에서 사전 등의 보조 수단이 없거나 누군가에게 그 의미를 물어볼 수 없을 때, 텍스트 속에서 스스로 그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또한 하나의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

네 번째는 학습자들이 앞 단계들에서 새롭게 배운 문법이나 표현 등을 가지고 직접 사용해보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길 묻는 방법에 대한 표현을 배웠다면 그 표현을 사용해서 직접 길을 묻는 대화를 하거나, 주제에 관한 텍스트를 쓰는 등의 연습 등이 이 단계에 포함된다. 누구나 배운 것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잊기 때문에 네 가지 수업 단계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따라서 교수자는 적합한 연습 과제를 다양하고 많이 나눠주어 연습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집에서도 복습할 수 있게 과제를 나눠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순서에 입각해서 동화 ‘백설공주 Schneewittchen’를 활용한 수업 계획표를 제시해 보겠다.

- 1) 교수자: 박소정
- 2) 날짜: 2018년 4월
- 3) 사용언어: 독일어 (주로 독일어를 사용하되 한국어로의 설명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한국어도 사용)
- 4) 단계: A2⁵²⁾

52) 주한독일문화원에서 발췌: <https://www.goethe.de/ins/kr/ko/spr/kon/stu.html>
 언어에 관한 유럽공통참조기준(GER)에 따른 단계로 A2 단계의 학습자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중요한 분야(예를 들어 신상, 가족, 물건 사기, 업무, 가까운 주변 지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상황에서 일반적이고 익숙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고 직접적인 정보 교환으로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간단한 수단으로 자신의 출신과 교육, 직접적인 주변 지역, 직접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들을 기술할 수 있다.

5) 수업자료 및 보조수단: 교수자가 나눠주는 프린트물(앞서 이미 제시되었던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학습의 자료들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사용하며 <자료>라고 명칭하고 뒤에 첨부), 컴퓨터,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 A4, A3, 색연필 또는 싸인펜

6) 전체학습목표: 학습자들은 독일어로 동화 ‘백설공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새롭게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

7) 수업 계획안

시간	부분학습목표	학습자활동	교수자활동	수업자료
5분	학습자들은 동화제목을 독일어로 말할 수 있다.	- 학습자들은 교수자가 제시하는 <자료1>을 보고 제목을 맞힌다.	- 교수자는 <자료1>을 나눠주거나 교실 여건이 된다면 화면으로 띄워서 보여준다. - 함께 확인한다.	<자료1>
10분	학습자들은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쓰거나 그림 그릴 수 있다.	- 학습자들은 A3 크기의 <자료2>를 그룹별로 받는다. 그룹 내에서 함께 이야기하며 연상되는 단어를 쓰거나 단어를 모를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린다.	- 교수자는 A3 크기의 <자료2>를 그룹별로 나눠준다. - 함께 확인한다.	A3크기의 <자료2>
20분	학습자들은 동화를 들으며 그림과 텍스트의 순서를 맞출 수 있다.	- 학습자들은 <자료3>의 그림을 받아 그룹에서 함께 순서를 맞춘다. - <자료4>의 내용을 훑어본 뒤, 동화를 들으며 그림에 텍스트 순서를 맞춘다.	- 교수자는 <자료3>을 잘라서 그룹별로 나눠주고 이야기의 순서를 맞춰보게 한다. - <자료4>를 잘라서 나눠주고 훑어보게 한 뒤, 동화를 들려준다. - 함께 확인한다.	<자료3>, <자료4>, 컴퓨터로 동화(53)를 들려준다.
10분	학습자들은 동화 속 등장인물에 대해 묘사할 수 있다.	- 학습자들은 등장인물 카드에 그룹 별로 상의해서 인물에 대해 세 문장씩 적는다.	- 교수자는 <자료5>를 잘라서 그룹별로 나눠주고 등장인물에 대해 세 문장씩 적어보게 한다. - 교수자는 돌아다니며 도움을 준다.	<자료5>
10분	학습자들은 동화 속 등장인물에 대해 묻고 대답할 수 있다.	-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적은 등장인물 카드를 뒤집는다. - 한 학습자가 카드 한 장을 고르면 그 카드 속 인물이 누구인지 나머지 동료 학습자들은 질문한다. 카드를 고른 학습자는 Ja/Nein으로 대답한다.	- 교수자는 모든 카드를 뒤집고 그룹에서 자신들이 직접 적은 문장들을 떠올려가며 그 문장들을 Ja/Nein Frage로 바꿔서 질문할 수 있게 한다.	<자료5>

15분	학습자들은 동화의 단락을 듣고 연상되는 장면을 그릴 수 있다.	- 학습자들은 동화 단락을 듣고 연상되는 장면을 그린다.	-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A4와 색연필 또는 싸인펜을 나눠주고 <자료6>의 동화 단락을 두 번 들려준다. - 모두 똑같이 듣고 잘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자료6>의 동화 단락 ⁵⁴⁾ , A4, 색연필 또는 싸인펜
10분		- 학습자들은 사냥꾼이 거짓말을 들킬 수 있기 때문에 공주를 죽였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팀과 반대하는 팀으로 나눠앉는다.	- 교수자는 들려주었던 동화 단락 속 내용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사냥꾼은 거짓말이 들통 날 수 있기 때문에 공주를 죽였어야 하나? 아니면 살려주어야 하나?) - 공주를 죽였어야 한다는 팀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팀을 둘로 나눠서 함께 앉게 한다.	
10분	학습자들은 동화 속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 학습자들은 <자료7>을 참고해서 자신들의 의견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다.	- 교수자는 찬성과 반대 팀에 <자료7>을 나눠주고 각각의 표현 카테고리를 간단한 예시와 함께 설명해준다. - 찬성팀과 반대팀에 A3를 나눠주고 <자료7>을 활용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써보게 한다.	<자료7>, A3
10분		- 학습자들은 각 팀에서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한다.	- 각 팀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팀 대 팀으로 토론하게 한다. - 모두가 적어도 한 문장씩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한다.	
20분	학습자들은 동화의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하여 쓸 수 있다.	- 토론이 끝난 후, 각 팀의 의견에 맞게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 된다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지 이야기의 스토리를 만들어본다. - 만들어진 이야기를 발표한다.	- 교수자는 각 팀의 의견대로 이야기가 전개될 시 펼쳐질 상황을 새롭게 구성해서 적어보게 한다. - A3크기의 <자료8>을 나눠주고 팀에서 함께 적을 수 있게 한다. - 발표 시킨다.	A3크기의 <자료8>

53)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84s> 의 동화를 들려준다.

8) 숙제: 학습자들의 시간적 여건이 된다는 전제하에 팀 별로 새롭게 구성된 이야기에 맞는 상황극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찍어오기

9) 참고할 점: 각 단계별로 제시한 시간은 교실의 여건이나 학습자들의 학습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상으로 P. Bimmel, B. Kast, G. Neuner가 제시하는 수업의 네 가지 단계에 맞게 수업계획안을 제시해보았다. 필자는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생각을 독일어로 표현할 줄 알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간에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수업이란 교수자가 생각하고 계획한대로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날씨나 하루 중 수업이 이루어지는 시간, 교수자나 학습자들의 신체 및 기분 상태 등에 따라서 교수자가 계획한 수업의 속도나 과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는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획한 과제를 학습자들이 어려워 하거나 이해를 못할 때 다른 방식으로 과제 방향을 설정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54)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84s> 의 동화 중 1분13초-2분52초

위 수업 계획안을 위한 자료

<자료1>

▶ Sehen Sie die Bilder und vermuten Sie. Wie heißt das Märchen?



A) Rapunzel




B) Aschenputtel



C) Die kleine Meerjungfrau



D) Schneewittchen



<그림 2>55)

55) 각각의 그림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캡처하였다.

- A) https://www.youtube.com/watch?v=4eYd_ZpHHWo
- B) https://www.youtube.com/watch?v=bb259_shgSw
- C) https://www.youtube.com/watch?v=STfEo2_9z0s
- D) <https://www.youtube.com/watch?v=m90nSpAM5Dg>

<자료2>

▶ Was fällt Ihnen zu dem Bild ein? Sammeln Sie Wör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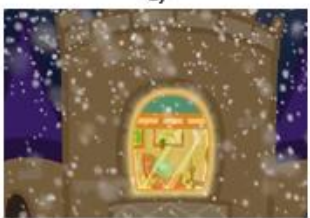





<그림 14>56)

56) <https://www.youtube.com/watch?v=m90nSpAM5Dg&t=1s> 에서 캡처하였다.

<자료3>

▶ Ordnen Sie die Textabschnitte zu den Bildern in der richtigen Reihenfolge.

<p>A)</p> 	<p>B)</p> 
<p>C)</p> 	<p>D)</p> 
<p>E)</p> 	<p>F)</p> 
<p>G)</p> 	<p>H)</p> 
<p>I)</p> 	<p>J)</p> 

<그림 5a>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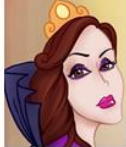



<자료4>

<p>① Da sah Schneewittchen ein kleines Häuschen und ging hinein, sich auszuruhen. (...) Und weil das arme Kind so müde war, legte es sich in ein Bettchen und schlief ein.</p>	<p>② und sprach, „Ich habe dich lieber als alles auf der Welt; Komm mit mir in meines Vaters Schloss, du sollst meine Frau werden.“ Da war ihm Schneewittchen gut und ging mit ihm.</p>
<p>③ Sie hatte einen wunderbaren Spiegel. (...) „Spieglein, Spieglein an der Wand, wer ist die schönste im ganzen Land?“ So antwortete der Spiegel, „Frau Königin, ihr seid die schönste im Land.“ (...)</p>	<p>④ Über ein Jahr nahm sich der König eine andere Frau. Es war eine schöne Frau, aber sie war stolz und übermütig und konnte nicht leiden, dass sie an Schönheit von jemand sollte übertroffen werden.</p>
<p>⑤ Da wollten sie sie begraben, aber sie sah noch so frisch aus wie ein lebender Mensch. Sie sprachen, „Sie können wir nicht in die schwarze Erde versenken“, und ließen einen durchsichtigen Sarg von Glas machen, (...) Dass setzten sie den Sarg hinaus auf den Berg, und einer von ihnen blieb immer dabei und bewachte ihn.</p>	<p>⑥ In dieser Gestalt ging sie zu den sieben Zwergen, klopfte an die Türe, Schneewittchen sprach, „Ich darf keinen Menschen einlassen!“ Die Krämerin antwortete, „meine Äpfel will ich schon loswerden. Da, einen will ich dir schenken.“ (...) ,streckte die Hand hinaus und nahm die giftige Frucht.</p>
<p>⑦ Es war einmal mitten im Winter, und da saß eine Königin an einem Fenster. (...) ,dachte sie bei sich, „Hätt ich ein Kind so weiß wie Schnee.“ Bald darauf bekam sie ein Töchterlein, das war so weiß wie Schnee. Und wie das Kind geboren war, starb die Königin.</p>	<p>⑧ Kaum aber hatte sie einen Bissen davon im Mund, so fiel sie tot zur Erde nieder. Die Zwerglein, wie sie abends nach Haus kamen, fanden Schneewittchen auf der Erde liegen, und es ging kein Atem mehr aus ihrem Mund, und es war tot.</p>
<p>⑨ Es geschah aber, dass ein Königssohn den Sarg auf dem Berg mit dem schönen Schneewittchen darin sah. (...) Der Königssohn ließ ihn nun auf dem Rücken des Pferdes und gingen fort. Da geschah es, dass das Pferd über einen Strauch stolperte, und von dem Schüttern fuhr das giftige Apfelstück aus dem Hals. So öffnete es die Augen und war wieder lebendig. (...) Der Königssohn sagte voll Freude, „Du bist bei mir“, und erzählte, was sich zugetragen hatte,</p>	<p>⑩ Aber Schneewittchen wuchs heran und wurde immer schöner, (...) Als diese einmal ihren Spiegel fragte, „ Spieglein, Spieglein an der Wand. Wer ist die schönste im ganzen Land?“ Und der Spiegel antwortete, „Frau Königin, ihr seid die schönste hier, aber Schneewittchen ist tausendmal schöner als ihr.“ (...) Da rief sie einen Jäger und sprach, „Du sollst es töten und mir ihr Herz mitbringen.“ (...) Der Jäger hatte Mitleid und sprach, „So lauf weg, du armes Kind!“ (...)</p>

<그림 5b>58)

57) 그림은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84s> 에서 캡처하였다.

<자료5>

 <p>der <u>magische Spiegel</u></p> <p>_____</p> <p>_____</p> <p>_____</p>	 <p><u>Schneewittchen</u></p> <p>_____</p> <p>_____</p> <p>_____</p>
 <p>die böse Königin</p> <p>_____</p> <p>_____</p> <p>_____</p>	 <p>der <u>Prinz</u></p> <p>_____</p> <p>_____</p> <p>_____</p>
 <p>der <u>Jäger</u></p> <p>_____</p> <p>_____</p> <p>_____</p>	 <p>die <u>sieben Zwerge</u></p> <p>_____</p> <p>_____</p> <p>_____</p>

<그림 24>59)

58) 텍스트는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84s> 에서 영상과 함께 제시되는 텍스트를 직접 기록하고 간추렸다.

59)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84s> 에서 캡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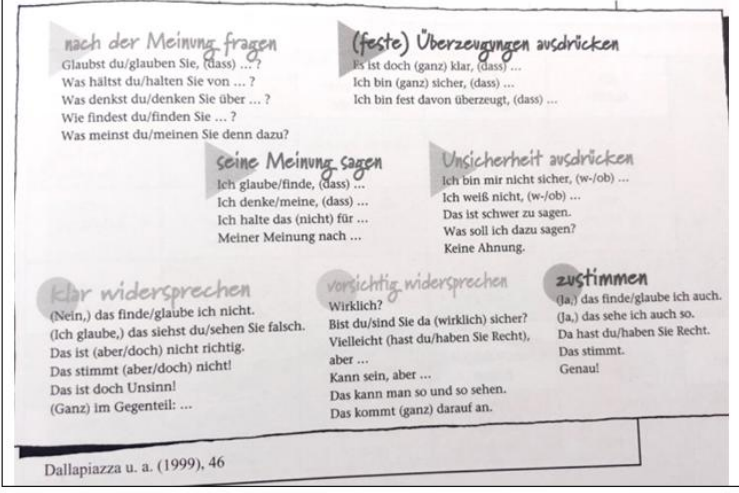
<자료6> - Transkription (1분13초-2분52초 구간)

Aber Schneewittchen wuchs heran und wurde immer schöner, und als sie sieben Jahre alt war, war sie so schön, wie der klare Tag und schöner als die Königin selbst. Als diese einmal ihren Spiegel fragte, "Spieglein, Spieglein an der Wand. Wer ist die schönste im ganzen Land?" Und der Spiegel antwortete, "Frau Königin, ihr seid die schönste hier, aber Schneewittchen ist tausendmal schöner als ihr." Da erschrak die Königin und ward gelb und grün vor Neid. Wenn sie Schneewittchen erblickte, kehrte sich ihr das Herz im Leibe herum, so hasste sie das Mädchen. Und der Neid und Hochmut wuchsen wie ein Unkraut in ihrem Herzen immer höher, dass sie Tag und Nacht keine Ruhe mehr hatte.

Da rief sie einen Jäger und sprach, „Bring das Kind hinaus in den Wald, ich will's nicht mehr vor meinen Augen sehen. Du sollst es töten und mir ihr Herz mitbringen. Der Jäger gehorchte und führte Schneewittchen hinaus, und als er den Hirschfänger gezogen hatte und Schneewittchens unschuldig Herz durchbohren wollte, fing sie an zu weinen und sprach, „Ach, lieber Jäger, lass mir mein Leben! Ich will in den wilden Wald laufen und nimmermehr wieder heimkommen.“ Und weil sie so schön war, hatte der Jäger Mitleid und sprach, „So lauf weg, du armes Kind!“ Und als gerade ein junger Frischling daher gesprungen kam, stach er ihn ab, nahm das Herz heraus und brachte es zum Beweis der Königin mit.

<그림 11a>60)

<자료7>



The image shows a piece of paper with handwritten German phrases categorized into several groups:

- nach der Meinung fragen** (Asking for opinion):
 - Glaubst du/glauben Sie, (dass) ...?
 - Was hältst du/halten Sie von ... ?
 - Was denkst du/denken Sie über ... ?
 - Wie findest du/finden Sie ... ?
 - Was meinst du/meinen Sie denn dazu?
- (feste) Überzeugungen ausdrücken** (Expressing firm beliefs):
 - Es ist doch (ganz) klar, (dass) ...
 - Ich bin (ganz) sicher, (dass) ...
 - Ich bin fest davon überzeugt, (dass) ...
- seine Meinung sagen** (Stating one's opinion):
 - Ich glaube/finde, (dass) ...
 - Ich denke/meine, (dass) ...
 - Ich halte das (nicht) für ...
 - Meiner Meinung nach ...
- Unsicherheit ausdrücken** (Expressing uncertainty):
 - Ich bin mir nicht sicher, (w-/ob) ...
 - Ich weiß nicht, (w-/ob) ...
 - Das ist schwer zu sagen.
 - Was soll ich dazu sagen?
 - Keine Ahnung.
- klar widersprechen** (Clearly contradicting):
 - (Nein,) das finde/glaube ich nicht.
 - (Ich glaube,) das siehst du/sehen Sie falsch.
 - Das ist (aber/doch) nicht richtig.
 - Das stimmt (aber/doch) nicht!
 - Das ist doch Unstinn!
 - (Ganz) im Gegenteil: ...
- Vorsichtig widersprechen** (Cautiously contradicting):
 - Wirklich?
 - Bist du/sind Sie da (wirklich) sicher?
 - Vielleicht (hast du/haben Sie Recht), aber ...
 - Kann sein, aber ...
 - Das kann man so und so sehen.
 - Das kommt (ganz) darauf an.
- zustimmen** (Agreeing):
 - (Ja,) das finde/glaube ich auch.
 - (Ja,) das sehe ich auch so.
 - Da hast du/haben Sie Recht.
 - Das stimmt.
 - Genau!

Dallapiazza u. a. (1999), 46

<그림 26>61)

60)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84s> 에서 영상과 함께 제시되는 텍스트를 직접 기록하였다.

61) Heide Schatz(2006): 『Fertigkeit Sprechen』, Langenscheidt, S.87

<자료8>

▶Bitte schreiben Sie die Geschichte weiter.

(...)

Aber Schneewittchen wuchs heran und wurde immer schöner.

An einem Tag fragte die Königin ihren Spiegel, " Spieglein, Spieglein an der Wand.

Wer ist die schönste im ganzen Land?"

Und der Spiegel antwortete, „Frau Königin, ihr seid die schönste hier,

aber Schneewittchen ist tausendmal schöner als ihr.“

Da erschrak die Königin und ward gelb und grün vor Neid.

Da rief sie einen Jäger und sprach, „Du sollst es töten und mir ihr Herz mitbringen.“

Der Jäger gehorchte und führte Schneewittchen hinaus.

☞

<그림 19>

V. 결론

급변하는 시대에 외국어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지만 특정 언어에만 그 관심이 치우치는 경향으로 인해 독일어를 포함한 유럽 국가의 언어는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유럽연합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중 독일어 사용자수 또한 최상위를 기록하지만 이러한 국제 정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편중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편중현상 속에서 갈수록 침체되어가고 있는 독일어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나마 끌어올리고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으로 독일어 학습에 활기를 주기위한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은 언어와 문화는 서로 필수 불가분의 관계로서 독일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알아가기 위해 독일의 문화가 서려있는 문학작품을 읽고자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보통 접하는 문학텍스트는 실질적으로 텍스트 구성이 어렵고 난해해서 독해 위주의 학습을 하다가 독일어는 딱딱하고 어렵다는 인식을 얻은 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친근감을 주는 삽화와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있는 동화 텍스트를 활용한 독일어 학습은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림형제가 수집하고 편찬한 그림 동화는 오랜 세월동안 여러 사람에게 의해 이야기되고 전해 내려오면서 독일 국민들의 사상이나 생활 관습이 반영되어 있어 독일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교육 자료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동화야 말로 독일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는 ‘백설공주 Schneewittchen’를 하나의 예시로서 선정하고 텍스트를 통해 언어

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몇 가지 연습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동화 속 이야기의 흐름을 미리 알고 그 선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독일어로 텍스트를 접했을 때 자연스럽게 독일어로 된 단어와 문장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학습자들의 흥미유발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과 오락이 가미된 놀이학습은 학습자들의 외국어 학습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낯선 언어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렵고 딱딱한 언어라는 선입견을 주는 독일어를 좀 더 친근하고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동화 텍스트를 활용한 독일어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동화 텍스트를 선정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적용한다면 보다 흥미롭고 다채로운 독일어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
- 강문희, 이혜상(1997): 아동문학교육, 학지사
- 강유선(2002): 인터넷을 활용한 독일어 수업의 효과와 문제점 - 쓰기 수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경숙(2010): 동화를 활용한 독일어 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미승(2007): 에듀테인먼트 관점에서 살펴본 독일동화의 외국어 학습 활용방안,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21집, 47-68쪽
- 김민하(2012):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동화수업지도모델연구: 「백설공주」와 「잠자는 미녀」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논문
- 김정철(2001): 교육적 관점에서 본 그림형제의 동화, 독일어문학 제15집, 23-47쪽
- 노영희(2003): 독일어교육을 위한 문학텍스트(literarische Texte)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민향기, 홍명순(2003): 자율적 독일어 학습을 위한 문학수업안 연구,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13집, 137-158쪽
- 손성호(2004): 독일어교육과 창의성 - 중등교육과 대학 교양독일어를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제26집, 315-329쪽
- 야코프 그림, 빌헬름 그림 지음, 이민수 옮김 (2005): 그림동화집, 노블마인
- 우자문(2002): 독일어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기식(2007): 독일어 교수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 독일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20집, 37-59쪽

- 이난희, 배은하(1999): 의사 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 방법 및 학습 자료 연구 - 독일어 수업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제3권 1호, 227-243쪽
- 이윤희(2004):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 따른 독일어 교수 방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태영(2016): 독일 동화교육의 역사 - 문학과 교육학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제72집, 239-259쪽
- 최영규(2002): 독일어 듣기능력 신장을 위한 듣기 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허남영(2004): 독일어 교육에서 만화를 활용한 상호문화 학습법,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허은주(2011): 고등학교 독일어 쓰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홍명순, 정시호, 이광숙, 이성만, 하수권, Ulrich Ammon(2002): 한국에서 독일어 - 과거와 현재,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10집, 173-202쪽
- 홍명순, 민향기(2004):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지역화 프로젝트 수업 사례연구, 독어교육 제29집, 127-148쪽
- 황정현(2007): 동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박이정
- Barbara Dahlhaus(1994): Fertigkeit Hören
- Bernd Kast(1999): Fertigkeit Schreiben, Langenscheidt
- Brüder Grimm: Kinder- und Hausmärchen, Band1, Reclam
- Gerard Westhoff(1997): Fertigkeit Lesen, Langenscheidt
- Heide Schatz(2006): Fertigkeit Sprechen, Langenscheidt
- Kiryu Misao, 이정환 역(1998): 알고보면 무시무시한 그림동화, 서울문화사
- Peter Bimmel, Bernd Kast, Gerd Neuner(2011): Deutschunterricht planen, Langenscheidt

- 인터넷 사이트 -

http://m.blog.daum.net/robin0924/135?np_nil_b=2

https://www.youtube.com/watch?v=4eYd_ZpHHWo

https://www.youtube.com/watch?v=bb259_shgSw

https://www.youtube.com/watch?v=STfEo2_9z0s

<https://www.youtube.com/watch?v=m90nSpAM5Dg>

<https://www.youtube.com/watch?v=LFObXevBw-s&t=84s>

<https://www.youtube.com/watch?v=lSYyMISgM1g>

https://www.vorleser.net/grimm_schneewittchen/hoerbuch.html

<https://www.goethe.de/ins/kr/ko/spr/kon/stu.html>